

2009學年度
碩士學位論文

觀光開發에 대한 地域住民의
集團行動 特性과 役割
- 濟州道 狍來洞 地域을 事例로 -

指導教授：高 東 完

京畿大學校 大學院

餘暇觀光開發學科

康 太 源



觀光開發에 대한 地域住民의
集團行動 特性과 役割
- 濟州道 狍來洞 地域을 事例로 -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京畿大學校 大學院

餘暇觀光開發學科

康 太 源



강 태 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09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차 례	iii
그 림 차 례	iii
논 문 개 요	i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범위와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태도	8
1. 관광개발과 지역발전	8
2. 관광영향과 지역주민 태도	11
제 2 절 집단행동의 개념과 전개	17
1. 집단행동의 정의	17
2. 집단행동의 유형	20
3. 집단행동의 연구동향	22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34
 제 3 장 연구방법	 38
제 1 절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38
1. 연구 설계	38
2. 심층면접조사 설계	40
3. 자료수집	41
4. 분석방법	44



제 2 절 조사대상지	48
1. 조사대상지 선정	48
2. 제주도의 현황	49
3. 예래동의 현황	52
 제 4 장 결과 및 고찰	 55
제 1 절 예래동의 관광개발 과정과 집단행동의 특성	55
1.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선정 이전	55
2.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시행승인 이전	59
3.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시행승인 이후	62
제 2 절 지역사회에서 집단행동의 역할	67
1. 지역 정체성의 보전과 강화	67
2. 개인적·집단적 효능감 증진	72
3. 지역애착심 향상	76
4.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82
 제 5 장 결론	 86
제 1 절 연구의 요약	86
제 2 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90
1. 시사점	90
2. 정책적 제언	93
 참고문헌	 95
Abstract	99



표 목 차

<표 2-1> 관광영향의 긍·부정적 영향 인식	15
<표 2-2>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비교	30
<표 3-1> 면접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특성	42

그 립 목 차

<그림 1-1> 조사대상지 위치	6
<그림 2-1> Mark의 모델	23
<그림 2-2> Durkheim의 모델	23
<그림 2-3> Weber의 모델	23



논 문 개 요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광개발에 대하여 나타나는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주민집단의 반발, 경제적 득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의식, 사업주체와 공공간의 협력,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주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가지는 특성과 역할을 도출하고자 한다.

집단행동이 벌어지는 곳은 관광목적지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고유한 터전이기에 과거부터 간직해온 지역의 역사와 특성 등 지역사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접근과 포괄적인 이해를 위하여 지역언론보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자료, 인터넷 블로그 등을 분석하고 마을대표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적자료수집을 위해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연구목적에 검토하기 위한 조사대상지 선정은 현재 관광개발이 추진 중이고 집단행동이 객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사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사용하였고,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연대별로 예래동의 관광개발 과정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과정에 따른 집단행동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태도를 언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앞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검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행동은 정체성을 보전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예래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사건에서 지역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나



타났으나 시설은 예정대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결과로 예래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역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더욱 강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환경적·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문화적·환경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관찰자와 감시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래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에 대한 반발로 집단행동이 나타난 이후 지역주민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알게 되었고,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 변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집단행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둘째, 집단행동의 참여효과로써 개인적·집단적 효능감이 증진된다. 예래동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역의 발전에 대한 잠재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관광개발은 집단적 효능감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순환고리가 완성될 것이다. 또한, 통제력이 강화되고 공동체의식이 강한 지역주민의 집단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적 참여기회를 주어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집단행동을 통해 지역애착심이 향상된다. 예래동의 주민들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애착심’과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지역애착심’이 동시에 나타난다. 하지만 모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관광개발이 지

역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심’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넷째, 집단행동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는데 기여한다. 예래동은 생태 체험지역로 지정된 바 있고 생태우수지역로 뽑힌 경험이 있을 만큼 자연이 아름답고 생태가 풍부하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문관광단지 개발은 예래동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스스로 「예래환경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환경보전과 환경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은 주변 환경에 대한 보전과 감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대응한 결과,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논깃물의 고갈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바다 오염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시로 배를 타고 가서 바다의 수질상태를 확인하게끔 만들었다.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강한 애정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집단행동, 관광개발, 정체성, 집단적 효능감, 지역애착심, 자연환경 보전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우리는 주변에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은 여러 사회단체나 일반적인 종교, 직장, 동호회 등의 집단행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이 속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많은 집단행동 사례를 볼 수 있다. 근래에 큰 이슈가 되었던 촛불시위, 용산참사, 제주도지사 소환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즉, 우리는 항상 집단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가까이에서 접하며 살아간다. 이런 집단행동을 접하며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단행동은 동조적인 집단행동 유형과 비동조적인 집단행동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임희섭, 1999: 4). 위협에 의한 집단행동, 즉 정부의 정책으로 자신의 삶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 나타나는 집단행동은 비동조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필요에 의한 집단행동, 즉 자신의 삶을 운택하게 한다든지,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든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나타나는 집단행동은 동조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집단행동은 주로 비동조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동조적인 집단행동보다는 비동조적인 집단행동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인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에는 주변에서 지역차원의 관광·환경 등 개발의 바람을 타고 무분별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단행동이 사회이슈로 종종 등장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을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계획과 사업추진이 중앙 주도적으로 관리·계획됨으로써 관광개발은 다분히 통제적이고 하향적인 형태가 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개발사업의 능률성 차원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지방행정의



업무도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에 바탕을 둔 행정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목표와 중앙정부의 정치적·행정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역할만을 부여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의 주민욕구와는 거리가 아주 먼 개발 정책으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다(윤준상·정지웅, 1994: 34).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광지 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다양한 관광개발이 추진되어왔다. 이는 관광이 지역소득 창출, 지역이미지 제고 등 지역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용이한 수단(윤상현·박석희, 2006: 72)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개발지역의 지역사회는 관광객의 관광활동 공간이기 이전에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며, 관광개발의 근본적인 목적은 관광객과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있다(고동완·김현정, 2003: 98).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개발은 사업자 측의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한 채 진행되어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급하게 추진하려던 관광개발의 시일이 더욱 지체시키거나 관광개발사업 자체 소멸시키기도 한다.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관광개발과정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관광개발이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며(윤상현·박석희, 2006: 72), 개발을 둘러싸고 치열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광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을 규명하는 연구는 앞으로 끊임없이 나타날 지역개발에서 긍정적인 대응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상습적으로 시기를 늦추거나 성과를 저해하는 측면에서가 아닌 지역사회론적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도출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목적

관광개발은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야기시킨다. 관광개발에 대하여 지역의 자연·인문적 유물을 빼앗기지 않고 현재의 삶을 지키려는 유형,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유형, 지역의 유물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그 댓가를 바라는 유형 등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집단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에 관한 연구의 주된 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발로 수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집단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따라서 무질서하게 발행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하고, 나아가 관광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얻기 위해 나타나는 집단행동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관광개발의 대응전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인 영향에 의한 지역주민의 인지적 태도, 이해, 관심에 따라 발생하며, 관광개발의 수준과 시기에 따라 집단행동의 양상이 달라진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의 역사적 배경, 지역주민의 태도,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활동하는 과정 등 집단행동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관광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행동이 관광개발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개념을 살펴본다. 즉, 관광개발에 대해 발생하는 집단행동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대상지에 적용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의 개념을 살펴본다. 관광개발과 집단행동

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관광개발에 대하여 나타나는 이해관계, 갈등에 관한 연구, 지역주민이 지역개발에 대응하여 집단으로 참여하게 된 요인에 관한 연구 등은 많은 진척을 보였다. 하지만 집단행동의 개념으로 관광개발에 적용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집단행동이 주민 반발과 주민 참여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집중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행동의 특성을 도출할 것이다.

둘째,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집단행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도출한다. 집단행동을 ‘다수 개인의’ 행동이라고 보았을 때, 집단행동의 특성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인보다는 집단행동의 양상에 주목하여 파악하는 것을 우선한다. 집단행동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광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집단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도출한다. 즉,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할 것이다.

셋째, 집단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관광개발이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사회의 노력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선행되어야 한다. 집단행동을 통한 노력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인식과 대응양상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관광개발의 대응전략 중 하나로 평가하게 될 실마리를 제공하여주고, 지역주민의 집단과 사업주체 간에 협상이 아닌 협력으로 가기 위한 집단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관광개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위한 집단행동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조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선,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론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다수 개인’이라고 보고 주민의 태도와 관광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영향 인식은 집단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영향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문헌에서 도출된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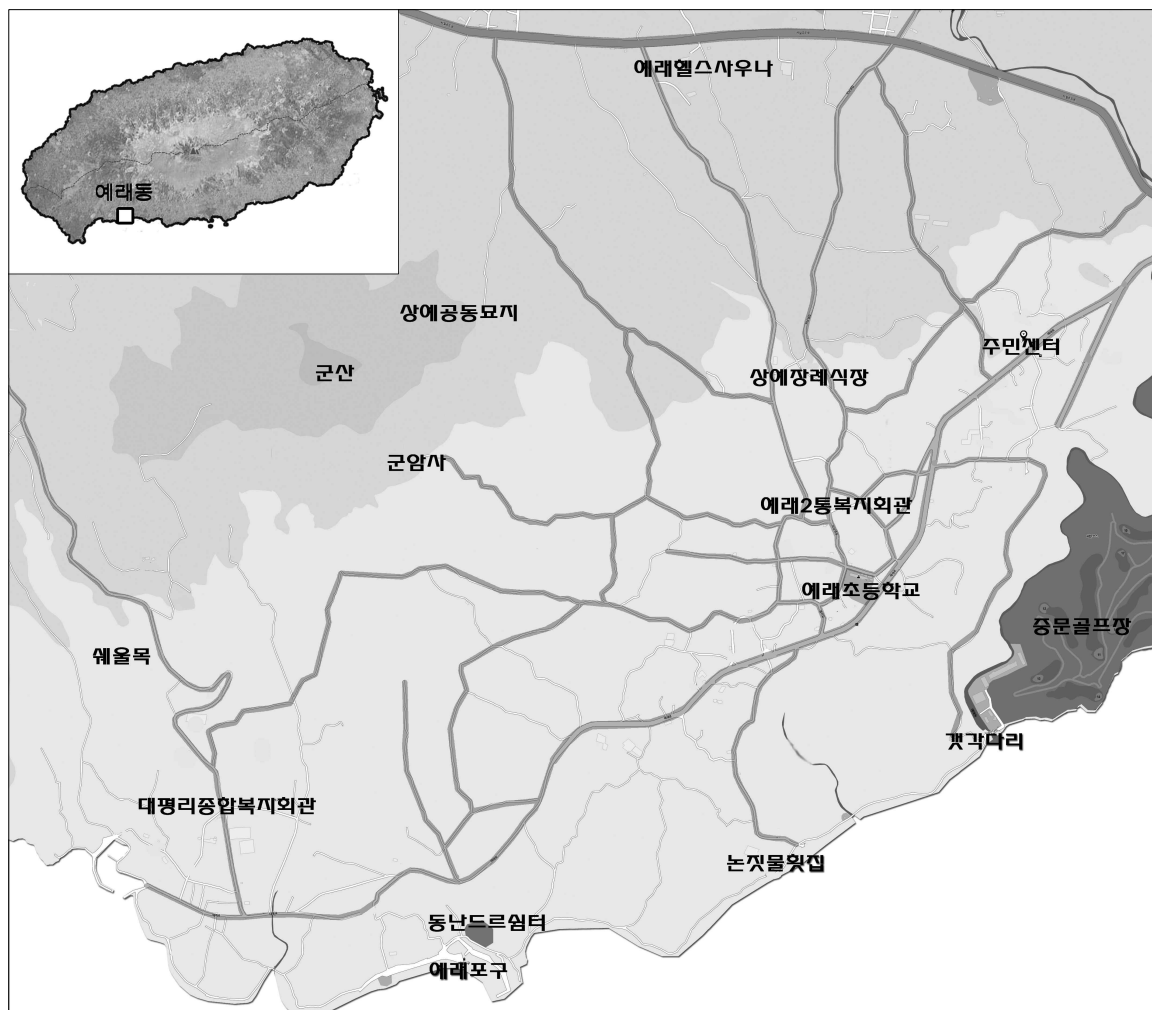
다음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관광개발에 대한 이해를 우선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 관광개발에서 집단행동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이해할 것인지, 연구되어온 집단행동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기 위한 1차자료와 2차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지의 관광개발 과정을 지역언론보도와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연대별로 나열하고 분석하여 관광개발의 과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와 집단행동의 특성을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며, 관광개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게 된다.

시간적 범위는 예래동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위해 1980년 이후로 정하

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서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공간적 범위는 활발한 관광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제주도를 선정하였고, 지역언론보도를 분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을 도출한다. 그리고 비교적 집단행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선정했다.



<그림 1-1> 조사대상지 위치

2.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과 집단행동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함께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에서는 관광개발, 관광영향과 주민의 태도, 집단행동과 관련된 개념,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접근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관광학 분야의 논문 및 도서는 물론 행정학, 정책학, 철학 등에서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를 고찰한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심층면접조사 설계, 대상지 설정 등 본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연구를 설계한다. 그리고 관광개발의 상황과 과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집단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한다. 질적자료수집을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이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위한 심층면접조사는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으로 선정하여 8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번에 나누어 사전조사(3일), 본조사(4일), 보완조사(4일)를 시행한다.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기록한 자료와 지역언론보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자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지에서 나타나는 관광개발과정과 집단행동을 분석하게 된다. 자료의 분석은 질적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분석으로 1차자료와 2차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된 자료를 통해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내용을 도출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접목시킨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태도

1. 관광개발과 지역발전

Harrison(1988)에 의하면 개발이란 경제적 성장, 구조적 변화, 자율적 산업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자기 현실화, 개인적, 국가적, 지역적, 문화적 자기의존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Goldsworthy(1988)에 의하면 초기의 개발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성장과 단지 성장을 촉진시키는 범위의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협소하게 표현되어졌으나, 점차 인간생활 개선과 선택의 확장을 통한 충족을 다루게 되면서 사회, 도덕, 윤리, 환경적 연구를 결합하기 위해 더 확장되어졌다. 이후 환경과 개발에 관하여 1992년에 열린 국제연합(UN)총회(지구회담 또는 리우총회)에서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이용한 지역공동체의 참가에 바탕을 둔 지속성 확보를 위한 활동계획인 Agenda 21을 발표하였고, Redclift(2000)은 환경운동의 발달에 따라 강력히 논의되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기 위해 개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고동완 외 2인 역, 2006: 45에서 재인용).

오늘날 대안적 패러다임은 관광개발을 알리기 위한 최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안적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Butler(1992)는 대안 관광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비유하였으며, 대안 관광은 ‘작은 규모, 지역 소유의 개발, 지역주민의 참여 그리고 문화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Brohman, 1995), 지속가능성은 이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 특히 전통적으로 가려졌던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한다(고동완 등, 2006: 182에서 재인용). 관광개발로 인한 효과는 관광개발 대상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은 관광개발의 경우에 주체자로서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포함한 관광개발사업 시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관광목적지로서

지역사회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매력물을 개발하며, 문화적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WTO, 1993), 지역주민은 그 상호작용의 중심에 있다(고동완·정승호, 2004: 177).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실천을 위해 수행한 많은 연구들이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Murphy(1985)는 ‘관광은 관광생산의 일부인 지역주민의 선의와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Woodley(1993)는 지역사회 중심적 접근방법은 관광개발에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임을 지적하였다. Simmos(1994)는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참여는 관광자의 관광경험에 대한 만족과 관광목적지로서의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Hall(1994)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곧 관광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김남조, 2001: 60에서 재인용).

Gunn(1994)에 따르면 관광개발은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사람들이 초기단계에서 관여하지 못한다면 거의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한다. 김남조(2001)에 의하면, 관광개발계획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관심을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장을 일관되게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정을 피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의사결정권을 초월하는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할 수 있고, 지역의 편익과 관계있는 개발과 보전의 연관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개발계획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엄서호(2007)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관광지 개발과정이 지체될 수 있지만, 관광지내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최근의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서 발생하는 관광에 대해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kama(1996)는 생태관광이 주도적인 산업으로 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Tosun(2000)은 지역사회 참여의 이상적인 형태로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이양하는 권한의 이양을 들었다. 즉, 지역주민은 자신의 지역에 어떤 형태의 관광시설과 관광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권한과 관광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남조, 2001: 60에서 재인용)

지역개발에서 관광의 역할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개발회사들은 지역개발의 효과적인 도구로써 관광을 선호하고 있다. 고용, 외화, 기술 그리고 개발자본의 증가라는 효과는 지역 간 경제적인 불균형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각국 정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또한, 국가 전반에 걸친 균등한 기회를 추구하는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광을 이용한 것이다. 중심부와 주변부(core-periphery)의 맥락에서 Christaller(1963)는 부유한 관광객이 대도시에서 주변부로 여행함으로써 외화가득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관광이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abogunje(1980)는 지역개발의 목표는 다양한 반면 주 관심사는 삶의 기회와 고용기회,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시민의 실질소득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거나 좁히는데 있다고 말한다.

Malecki(1997)는 지역개발의 도구로서 매력이 되는 몇 가지 관광의 개념을 검토했다. (1) 관광은 다른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 관광산업은 노동 집약적이며, 진취적인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3) 특별한 자연적·문화적·역사적 매력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련 상품들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요인들을 지적했다. (4) 관광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저임금의 고용을 창출한다. (5) 한 지역이 받는 혜택의 양은 수입으로 발생하는 누출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몇몇 소규모 국가에서는 누출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승수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6) 국제관광산업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들이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되면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관심을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장을 일관되게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할 수 있고, 지역의 편익과 관계있는 개발과 보전의 연관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관광개발은 다양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개발의 다양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야기한다. 집단행동은 지역사회와 관광이 상호의존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이끌 수 있다.

2. 관광영향과 지역주민 태도

Eagly과 Chaiken(1993)에 의하면 태도(attitude)란 ‘특정의 실재(entity)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어떤 정도로 평가함으로써 표출되는 심리적 경향’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 의견(: 인지적 태도)과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 평가, 감정(: 정서적 태도),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행동(: 행동적 태도)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관광개발을 통하여 발생하는(또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인식(또는 기대)과 이러한 영향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및 정서적 반응, 그리고 찬성 또는 반대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동완·정승호, 2004: 179에서 재인용). 김남조(2001)는 지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해 지역주민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Cooke(1982), Getz(1983) 등의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태도는 지역 내의 관광개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즉, 관광개발의 수준에 따라 관광객과의 관계나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 수준이 달

라진다고 하였다. Allen 등(1993)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은 관광개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역사회의 관광개발 수준 및 전체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즉 관광개발 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높은 주민들보다 낮은 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지만, 관광개발 수준이 높은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활동이 높은 지역주민들이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동완, 2001: 67에서 재인용).

지역주민의 태도는 집단행동을 야기한다. 그리고 관광개발에 대해 발생한 집단행동은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 태도가 집결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주민 태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태도의 형성에 주요변수로 작용하는 관광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광영향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집단행동의 원천적인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태도를 살펴보았고, 지역주민의 태도는 관광영향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고동완(1998)에 따르면, 관광영향(tourism impact)이란 관광자원 및 시설의 물리적 개발과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 등을 포괄하는 관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말하며, 관광개발영향(tourism development impact)과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 특히 관광영향은 관광자원 및 시설의 물리적 개발과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 등을 포괄하는 관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로 ‘관광효과(tourism benefit)’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인식이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혹은 지각으로 모든 긍정적·부정적 결과들이며, 시간적으로는 현재까지의 종단적 결과를 의미한다. 또한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을 전제로 한 지역조건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지역성을 중시하는 지역사회론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고동완(2001)은 관광영향의 속성을 7개의 실증연구(Belisle and Hoy, 1980;

Haralambopoulos and Pizam, 1996; Lankford and Haward, 1994; Milman and Pizam, 1988; Liu and Var, 1986; Perdue, Long and Allen, 1987; Pizam, 1978)를 검토하여 재구성하였다.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의 3범주로 나누고 경제적 영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고용 증대, 지역주민 소득 증대, 지방 조세수입 증대, 재산세 증가, 생활비용 증가, 과소비 성향 등을 도출하였다.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주민 생활의 질 향상, 레크레이션 기회 확대, 생활양식이해 교류, 전통문화(재) 발굴, 주민 문화활동 촉진, 공공 서비스 개선, 교통사고·체증 증가, 범죄 발생 증가, 미풍양속 저해, 한탕주의(도박 등) 성행, 지역 고유문화 파괴 등을 도출하였다. 환경적 영향으로는 지역정비 및 매력 증가,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 정비,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지역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증가 등을 도출하였다.

김사헌(2001)은 관광의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관광산업을 ‘만병 통치약’으로 전제하고 이의 적극 육성을 주장하는 관광개발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이 관광의 경제적 효과이다. 관광은 중간 원료가 많이 들어가는 일반 제조업들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높고, 타산업에 비해 비교적 적은 자본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소득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잘 개발하여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므로써 손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특히 관광산업은 고용기회 창출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관광은 물가인상을 부채질하고 국민의 소비성향만을 조장한다고 한다. 또 관광은 산업구조가 발달된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득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가난한 소규모 국가일수록 소득의 누출효과가 높아 소득창출력이 기대이하이다. 고용도 고급경영자나 관리자가 아닌 단순 노동력만을 수요하고 더구나 계절성이 강한 취업 형태를 보이므로 기대할 바가 못된다. 또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관광산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 관광은 이 산업 간 연쇄효과가 극히 낮아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못된다. 관광산업이 도입·진흥되었을 때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환경적 효과 역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찬성론자들(주로 관광행정실무자, 지역정책학자, 경제학자 등)은 주로 경제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내세우고 반대론자들(주로 문화인류학자, 민속학자, 생태학자 등)은 대체로 사회·문화적 효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고동완·정승호(2004)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태도 차이를 분석하면서, 강원 태백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기대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광영향’을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의 총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광개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대체로 지역적 맥락의 영향(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역 조세수입 증대, 공공기반시설 확충, 생활기반시설 과부하, 지역자본 유출 증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개인적 맥락의 긍정적 부정적 경제적 영향(고용증대, 소득증대, 쇼핑기회 증대, 부동산 가격 상승, 재산세 등 증가, 생활비용 증가)에서 모두 관광객보다 더 높았다. 또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관광개발 추진단계에서부터 관광객과 차이가 있으며, 이후 관광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개인적 맥락의 긍정적·경제적 영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부정적·경제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이러한 차이는 불균형적 관계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Carmichael(2000)의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카지노와 같은 강한 흡인력과 영향력을 갖는 관광매력물이 도입되었을 때 지역주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구분되는 2×2의 행렬을 이용하여 태도와 행위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는 측정변수로 레크레이션 참여기회 확대, 세금수입 증가, 소득 증가, 실업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 범죄 증가, 역사문화환경 저하, 교통체증 발생, 자연환경 질의 감소, 사회환경 질의 감소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변수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규모의 관광매력물을 개발하는 곳, 관광개발업자가 새로운 사회집단을

형성시키는 곳 등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민감한 지각과 현저한 반응을 나타낼
을 시사하고 있다(김남조, 2001: 62에서 재인용).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의 3가지
범주로 정하고 있다.

<표 2-1> 관광영향의 긍·부정적 영향 인식

구분	긍정적 관광영향	부정적 관광영향
경제적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소득 증대 지방 조세수입 증대 높은 부가가치율 투자유치 기반시설, 교통시설 개선	재산세 증가 생활비용 증가 과소비 성향 유발 전시효과 유발 외부의존성 증대 경제구조 불안정화
사회·문화적 영향	주민 생활의 질 향상 레크레이션 기회 확대 생활양식 이해 교류 전통문화(재) 발굴 주민 문화활동 촉진 공공 서비스 개선 지역 문화의 중요성 인지 지역 홍보 효과 소방시설, 치안유지의 질 개선 문화적 정체성 보존	교통사고, 체증 증가 범죄 발생 증가 미풍양속 저해 불건전한 주민의식 조장 지역 고유문화 파괴 지역유대감 상실 사생활 침해
환경적 영향	지역정비 및 매력 증가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 정비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지역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증가

주)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관광개발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관광영향 요인이 나타나고, 이는 주민
들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관광개발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이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지각은 지역주민의 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태도는 곧 관광개발에

대해 지역주민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은 주민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이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은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의 상황과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역민의 집단행동을 이해하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관광영향에 대하여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태도에 주목하여 집단행동이 가지는 특성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집단행동의 개념과 전개

1. 집단행동의 정의

관광개발은 지역성을 중시하는 지역사회론적인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입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지역사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집단행동의 정의, 유형, 연구동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성윤·문형만(2005)에 의하면 최근에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활발해지자, 국가 기구와 지방 행정부, 그리고 사업자의 손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개발 사업은 주춤하게 되었고, 가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집단행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 오늘날 집단행동의 현상은 거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약화, 지역주민의 영향력증대와 님비현상(김재훈, 1992) 그리고 주민의 물적 토대와 심적 기반이 강화됨으로써 국가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 등이 중요한 발생이유가 될 것이다.

이처럼 집단행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학자들의 정의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Lang과 Lang(1968)은 집단행동을 “사회구조에 환원할 수 없는 자발적이고 비구조화된 사회적 행동(those patterns of social action that are spontaneous and unstructured in as much as they are not organized and are not reducible to social structure)”이라고 정의하여 집단행동의 비제도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초기 집단행동연구에 크게 기여한 Blumer(1969)는 집단행동을 “잘 정의되지 않은 상황, 또는 비구조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어나는 다수 개인들의 행동(behavior which arises to meet undrfined or unstructured situations)”이라고 정의하여 집단행동을 받드

시 비제도적인 행동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화된 규범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제도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양식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임희섭, 1999: 3에서 재인용).

집단행동의 일반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학자인 Smelser(1962)는 “사회적 행동을 재정의하려는 신념에 기초한 행동의 동원(mobilization of action on the basis of belief which redefines social action)”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집단행동이 기존의 사회규범, 제도 및 가치체계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신념에 기초한 다수 개인들의 적극적인 공동행동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근래의 집단행동이론가와 연구자들은 집단행동을 “공유된 이익을 추구하는 다수 개인들의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 of the people in pursuit of shared interests)”이라고 정의하면서 종래의 ‘collective behavior’라는 용어 대신 ‘collective 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Tilly, 1962). 그 이유는 ‘collective behavi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초기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집단행동을 비제도적일 뿐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병리적인 사회적 행동이라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 온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 규범과 제도 등의 변동을 지향하는 “정상적이고 조직적이며 합리적인” 집단행동을 나타내는 ‘collective action’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임희섭(1999)에 의하면, 집단행동이란 잘 정의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다수 개인들의 비제도적인 행동, 또는 기존의 규범, 제도, 정책, 가치 등의 변화(때로는 보수)를 지향하는 다수 개인들의 공동행동이라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정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정의는 기존의 제도화된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비동조적인 행동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자의 정의는 주로 잘 정의되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적응적(adjustive)’인 집단행동으로서 다소 감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데 비해, 후자의 정의는 기존의 제도화된 규범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에 의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이며 조직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그리고 전자의 정의가 집단행동을 군중행동과 대중행동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접근하려 한 제도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채택되었던 정의라면, 후자의 정의는 집단행동을 공유된 이익을 추구하거나 기존 제도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며 최근의 연구자들에 의해 채택되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집단행동의 논리에 따르면(Olson, 1965), 사회의 구성원이 그들의 기여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동선의 달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사회적 기대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이경원, 2008: 317에서 재인용). 하지만 소규모의 집단행동은 다를 수 있다. 김욱(1993)은 소규모의 집단행동에 주목하여 “한 사회의 체계가 세포적으로 조직되어 있을수록, 그 사회는 보다 높은 경제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는 소집단의 특성을 세 가지로 특성지었다. 먼저, 사회적 압력에 의해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줄게 된다. 소집단의 경우 구성원들 간의 얼굴을 맞대는 접촉이 가능한바, 이러한 접촉은 그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압력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대집단의 경우보다 이런 암묵 행동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양의 집단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빈번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접촉 및 교류는 그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이러한 의식은 구성원들 간의 협조를 도모할 뿐 아니라, 또한 전체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동일화시킬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이익을 쫓아 집단 전체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동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희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접촉과 대화가 어려운 대집단의 경우보다 집단행동의 문제가 쉽게 극복될 수 있다. 세 번째, 구성원들 간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양의 집단재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된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은 곧 서로 간에 대화나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낮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구성원 상호간의 정보나 의사 교환을 활발히 촉진함으로써, 계약의 체결을 통한 집단행동 문제의 극복을 용이하게 만든다.

이경원(2008)에 따르면 빈번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 간의 접촉 및 교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또한, 이러한 소집단은 무임승차를 통제할 수 있다. 무임승차자가 많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존의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집단 내의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2. 집단행동의 유형

사회학에서 집단행동(collective behavior 또는 collective action)의 연구는 기존의 ‘제도화된 행동(institutionalized behavior)’에 속하지 않는 다수 개인들의 집합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은 특정한 사회에서 바람직한 행동양식이라고 정의된 제도화된 행동에 속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화된 행동양식을 따르지 않는 비동조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비동조적인 사회적 행동은 크게 일탈행동(deviant behavior)과 집단행동(collective behavior)으로 나뉜다. 일탈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이 기존의 사회규범과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그에 비해 집단행동은 기존의 제도화된 행위양식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나, 부득이하게 기존의 행위양식을 따르기 어려운 위급한 재난 상황, 또는 기존의 사회규범과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변화시키려 하는 상황 등에서 일어나는 다수 개인들의 집단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임희섭, 1999: 2).

첫 번째 유형은 공식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언비어(rumor)가 발생되고 유포되며, 그 정보에 의존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유형은 제도화된 행위양식만으로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

려운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기존의 제도화된 행위양식이 자신에게 크게 불리하거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게 되면, 그들은 그 정책의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나 농성과 같은 집단적인 항의행동(protest behavior)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제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제도의 철폐나 개선을 위해 조직적인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을 벌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 혁명(revolution)이 시도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으로 제시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은 관광개발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이를 변화시키려 하는 상황 등에서 일어나는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행동으로써, 소규모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 개인들이 공유된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란 개인의 경제적인 득실보다는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공동체 보전, 지역정체성 보전 등을 의미한다.

3. 집단행동의 연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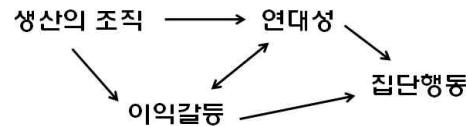
1) 고전적 집단행동 이론

사회학의 성립 당시부터 사회학의 기본 관심은 사회의 질서, 즉 사회 통합의 문제와 사회질서의 변동 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고전적 사회학자들도 사회변동과 사회 재조직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집단행동의 문제에 대해 적지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Mark(1970), Durkheim(1893), Weber(1972) 등 고전사회학자들은 사회구조와 변동에 관한 일반이론 안에서 집단행동에 관한 이론적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같이 집단행동이 거시적인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동지향적인 사회적 행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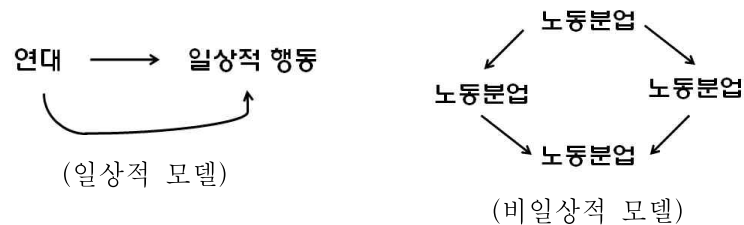
Mark(1970)는 집단행동이 기존의 생산관계에서의 생산력과 생산양식 간의 모순이 증대해 감에 따라, 피지배계급의 연대된 이익추구행동이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려는 혁명적 사회운동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비해 Durkheim(1893)은 분업이라고 하는 구조적 변동을 수반하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전통적 집단의식의 해체와 사회적 규제력의 약화라는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소외와 불만을 경험하는 개인들에 의한 비일상적이고 일탈적인 집단행동이 발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된 이익을 추구하는 일상적 집단행동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Weber(1972)는 그가 합리화의 과정으로 이해한 산업화 또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일상화된 신념체계가 새로운 카리스마의 도전을 받거나 관료제적 조직에 의한 합리화 지향의 집단행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Mark(1970)는 이해(interest), 연대성(solidarity) 및 조직(organization)의 요인을, Durkheim(1893)은 개인적·사회적 불만(discontent)과 연대성의 요인을, 그리고 Weber(1972)는 신념(belief)과 이익, 그리고 조직의 요인을 집단행동의 주된 설명요인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Tilly(1978)는 이들의 집단행동이론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요약하였다. 이들 고전 사회

학자들이 현대의 집단행동이론의 중요 변수들인 이익, 연대성, 신념, 조직 등의 요인을 적시함으로써 집단행동의 기초를 닦았다.



<그림 2-1> Mark의 모델



<그림 2-2> Durkheim의 모델



<그림 2-3> Weber의 모델

2)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집단행동에 관한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은 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구조기능이론(structural-functionalism)의 관점과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구조기능론은 사회를 그 구성부분들의 상호의존적인 체계(a system of interrelated parts)로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사회체계는 균형과 통합을 유지하는 안정된 체계라고 가정한다. 또한 사회체계는 그 구성 부분들의 변화에 의해 체계에 불균형

과 긴장이 발생하게 되면, 체계의 적응적 변동(adjustive change)에 의해 다시 균형을 회복해 나아가는 자기규제적인 체계(self-regulating system)로 개념화된다. 따라서 구조기능주의자들은 집단행동을 체계의 구성요소(규범, 가치, 제도 등)들의 불일치(inconsistency)나 괴리(discrepancy) 등으로 인한 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s) 혹은 불균형(disequilibrium)에서 비롯되는 변동지향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본다.

그러나 구조기능론적 집단행동이론은 집단행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구조적 긴장이나 불균형을 측정하기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오늘날 어떤 구조기능주의자 혹은 체계이론가들도 사회체계의 긴장과 불균형에 대한 신뢰할만한 척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Tilly, 1988).

3) 사회심리학적 접근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social-psychological approach)은 사회를 충족된(gratified) 또는 좌절된(frustrated) 욕구와 기대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으로 개념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사회체계보다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한다. Schwartz(1972)에 따르면 이 접근은 집단행동이나 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동기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다른 모든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집단행동 역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한다.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집단행동을 정치적 폭력으로 표현되는 비제도적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집단행동은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과 불만에 의해서 촉발되어 궁극적으로는 체계의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행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의 합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의 총합의 선형함수(linear function)라고 보면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의도와 결과 간에는 밀접한 상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사회심리학적 접근의 중심개념인 상대적 박탈감이 초래할 수 있는 ‘심리학적 환원론(psychological reductionism)’의 위험성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궁극적으

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수준의 가치불만(value frustration)이라기 보다는 가치분배의 형평성과 관련된 사회적 불만(social discontent)이라고 볼 때, 단순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서 나타내는 상대적 박탈감만으로는 구조적인 불만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기대와 가치능력 간의 격차 또한 사회적 기대와 사회적 성취 간의 격차로 개념화되는 상대적 박탈은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를 겨냥하고 있는 개념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집단 또는 사회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사회적 불만의 양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평등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적 이론가들은 사회적 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전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의 개인주의적 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Obershall, 1978).

4) 구조적-역사적 접근

그 후 구조적-역사적 접근(structural-historical approach)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마르크시즘적 접근, 자연사적 접근, 사회심리학적 접근,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등이 사회운동과 혁명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역사적-구조적 접근은 집단행동, 특히 혁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역사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명의 주요 변인으로 계급과 국가 등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비교-역사적 방법론을 채택하는 이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혁명 사건들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인 일반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몇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는 이 접근이 강조하고 있는 구조적 관점이 인간의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혁명논의에 있어 구조적인 원인과 객관적인 결과에 매몰된 나머지 혁명과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Himmelstein & Kimmel, 1981)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역사적-구조적 접근이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제한적으로만 취급한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이 접근에서 이데올로기가 어떤 인과적 설명력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여러 혁명 연구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임희섭, 1999: 74).

5) 합리적 선택이론

초기의 집단행동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집단행동에 대한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이나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비합리적인 특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접근이었다면, 합리적 선택이론은 그와 같은 기존의 접근방법을 비판하는 대신 집단행동 참여자들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측면을 강조하는 대안적인 이론으로 제안되었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choice theory)은 기본적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참여에 따르는 비용(cost)과 이득(benefit)에 대해 합리적 계산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경원(2008)은 집단행동의 문제는 합리성(rationality)에 바탕을 둔 개인의 이익추구(self-interested) 행동이 집단이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한다. 개인행위는 자기이해(self-interest)에 의해 동기지어진다는 공리주의적 가정(utilitarianism an assumption)과 경제학적 인식틀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회학적 문제제기와 경제학적 분석방법의 결합에 의한 집단행동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에 받고 있다. 그리고 집단행동 참여자들이 자신의 처지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직관에 따르며 참여한다기 보다는 합리적인 동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해서 행동한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이 지닌 문제점도 적지 않다. Eckstein(1989)에 따르면 집단의 이익과 집단의 연대(group solidarity)라든지, 집단행동에 참여하게 하는 도덕적 구속력, 그리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동기들이 개인의 이해를 넘어서서 개인들을 집단행동에 참여하게 하기도 한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



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론은 집단행동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더 나아가 이 이론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자기이해라는 개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은 한 번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a single play of prisoner's dilemma game)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게임(iterated games)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개인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처음에는 집단행동을 성사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접촉은 상대방의 선택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집단행동을 출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임희섭, 1999: 84).

6) 자원동원이론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은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사회운동 일반을 사회해체의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조직의 산물로 인식함으로써 집단행동을 제도화된 행동의 확장으로 규정하고, 논의의 초점을 개인이나 사회체계의 차원에서 집단적 행위자로서의 조직의 차원으로 옮기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또 하나의 분석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동원이론의 기본가정은 사회운동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이나 변동을 지향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집단행동의 발생과 전개과정은 축적된 사회적 불만의 양보다는 자원동원의 가능성 여부와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원동원이론이 설명하고자 했던 집단행동이 대체로 서구의 다원적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대의 집단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경쟁관계 속에서 참여하는 집단들의 조직구조와 전략이 논의의 핵심으로 대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동원이론은 집단행동은 합리적이며, 그 목표는 제도화된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익의 갈등에 의해 규정되며, 갈등으로 인한 불만은 모든 사회에 산재해 있으므로, 집단행동의 형성은 자원, 조직, 기회의 변화 등에 의해 결정되며, 공식적으로 구조화된 조직이 현대 집단행동의 전형적인 형태이고,

집단행동의 성공은 전략적인 요인들과 정치과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설명된다는 등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동원이론에 근거해서 1970~80년대에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그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사회운동조직이 어떻게 참여자들을 확보하고, 그들을 활동적인 참여자로 계속 유지시키며, 또한 그들의 잠재적 역량을 어떻게 공동의 목표에 연결시킬 것인가 등의 동원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두 번째의 영역은 어떤 형태의 조직이 집단행동에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가 하는 운동조직에 관한 연구이다. 세 번째로는 사회운동조직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와 같은 자원동원이론은 집단행동과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가장 정교한 시도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임희섭, 1999: 101-102).

그러나 자원동원이론이 지닌 문제점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우선 자원동원이론은 집단행동의 형성과 발전에서 지나치게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집단행동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로 자원동원이론은 전통적으로 집단행동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오던 집합체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불만(grievances)과 그와 같은 불만을 공유하는 개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성(identity)의 문제, 그리고 불만의 원인과 해결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이념(ideologie)의 문제 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로 집단행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은 필수적인 것이며, 조직의 구성은 대규모적이고 분업체계가 철저한 공식적인 형태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임희섭, 1999: 102-103).

7) 신사회운동론

1960년대 중반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학생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소수집단의 민권운동, 대안의학(alternative medicine)운동, 근본주의적 종교운동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사회운동 연구자들은 집단행동과 사회운동들은 대체로 계급적 기반 위에서 경제적 이해를 중

심으로 전개된 노동운동과 계급운동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다면, 1970~80년대의 사회운동들은 전통적인 사회운동들과는 운동의 사회적 기반, 목표, 조직, 수단 등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집단행동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서의 사회적 불만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사회운동조직의 자원동원능력과 그 사회에서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집단행동의 발생과 과정 및 결과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주로 자원동원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자원동원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유럽의 사회학자들은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들을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라고 명명하고 신사회운동의 특징과 시대적, 구조적 배경의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해왔다. 신사회운동론자들은 우선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신사회운동’이라 명명하고 어떤 점에서 “새로운가”, 다시 말해서 구사회운동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한편, 그와 같은 신사회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종래의 사회운동들이 대부분 계급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운동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의 사회운동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보다는 집단적 정체성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운동의 사회적 기반도 중간계급이었거나 범계급적인 사회적 범주로 바뀌고 있었다(임희섭, 1999: 120-121).

그러나 많은 신사회운동론자들은 ‘새로운’ 사회운동들을 이전의 사회운동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불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신사회운동론을 특수한 사회운동에 대한 ‘특수이론’으로 한정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새로움(newness)’에 집착한 나머지, 신사회운동론을 다른 모든 사회운동들을 포괄하는 사회운동의 일반이론으로 발전시키는데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신사회운동론자들은 서유럽과 북미의 백인, 중간계급에 치우친 사회운동의 ‘특수한’ 사례들을 특권화함으로써,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운동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



는 ‘새로운’ 사회운동들조차도 그들의 시야 밖으로 제외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원동원이론은 현대의 사회운동이 지니는 전략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신사회운동론자들은 현대 사회운동의 정체성 지향적 성격에 중점을 두어 연구해 왔다. 그와 같은 전략지향적 사회운동과 정체성 지향적 사회운동이라는 현대 사회운동의 특성이 자원동원이론과 신사회운동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해명됨으로써 현대의 사회운동이론은 종래의 계급운동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사회학적 사회운동이론으로 발전해 나아갈 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임희섭, 1999: 124).

<표 2-2>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비교

	노동운동	신사회운동
위치	정치체계 내부	시민사회
목표	정치적 통합/경제적 권리	가치 및 생활양식의 변화/시민사회의 방어
조직	공식적/위계적	연결망/풀뿌리
행위수단	정치적 동원	직접행동/문화적 혁신

주) 자료: 정수복 역,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화과지성사.

8) 구성주의이론

최근의 사회운동이론가들은 사회운동의 일반이론으로서의 자원동원이론과 신사회운동론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구조와 과정 및 행위자와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구성주의이론(constructionism)을 제안하게 되었다. 구성주의이론가들은 전통적인 집단행동이론과 대중운동이론, 구조기능주의 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접근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적 자원들과 자원동원이론 및 신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성과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Mueller(1992)는 자원동원이론이 불만, 집단적 정체성, 이데올로기 등 사회운동의 중요한 요인들을 사회운동의 연구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운동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행위자의 재개념화, 면접적 상호작용의 중요성, 기존의 사회정치문화(social-political culture) 속에서 대립적인 요소를 발현시키는 의미의 특정화(specification of meaning) 등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위치 지어진 개인들이 의미의 구성을 통해 어떻게 집단행동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학적 집단행동이론의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사회운동론은 집단행동의 일반이론으로서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의 대두와 활성화를 설명하는 특수이론의 성격을 지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신사회운동론은 자원동원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집단행동에서의 사회적 불만이나 집단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이데올로기 및 문화적 지향의 중요성 등을 발견함으로써 집단행동연구의 새 지평을 열고 구성주의이론이라는 새로운 집단행동이론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하여 Klandermans(1989)는 미국에서 발전된 자원동원이론과 유럽에서 발달된 신사회운동론이 지닌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양자를 통합시켜 나아갈 새로운 집단행동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리하여 집단행동의 사회적 구성, 즉 집단행동 참여자들의 ‘집단의식의 전환과정을 통한 집단행동’을 다룬 연구 성과들로서 다음 다섯가지를 들었다.

첫째, McAdam(1982)이 제시한 ‘인지적 해방(cognitive liberation)’의 개념이다. 인지적 해방은 기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 운명론적 체념에서 벗어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 새롭게 정치적 효율감(참여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비로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Gamson(1975), Gamson과 Modigliani(1989) 등이 제기한 ‘공론(public discourse)’의 중요성이다. 이들은 사회운동의 동원과정에서의 대중매체의 중요

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적 쟁점과 주제(themes)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들은 여러 가지 이념적인 주장들(ideological packages)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징적 투쟁(symbolic struggles)을 벌이는 동안 행위자들은 참여 또는 비참여의 의미를 구성해 나아간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Klandermans(1984)에 의해 제기된 합의의 동원(mobilization of consensus)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합의의 동원과 행동(action)의 동원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행동의 동원은 이미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행위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여 의식을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과정이고, 합의의 동원은 운동조직이 행위자들의 의식 및 이념적 수준에서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잠재적인 참여자들을 확보해 나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와 같은 합의의 동원은 행동의 동원에 앞서는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행위자들이 집단행동에의 참여가 의미있는 행동임을 믿게 되어가는 사회적 구성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Snow(1986) 등에 의해 제안된 ‘틀정렬(frame alignment)’의 분석이다. 그들은 개인들의 인식 틀(cognitive frame)이 운동조직의 이념적 틀(ideological frame)과 연결되는 과정을 틀정렬이라고 부르고 집단행동의 연구에서 그와 같은 틀정렬의 분석은 집단행동의 사회적 구성을 밝히는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집단행동조직은 주어진 상황적 조건이나 사건들에 대한 개인들의 해석과 의미부여를 자신들의 해석과 연결시킴으로써, 잠재적 지지자와 구성원들을 확보하고 확대해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와 같은 틀정렬의 과정을 틀연결(frame bridging), 틀증폭(frame amplification), 틀확장(frame extension), 틀전환(frame transformation) 등의 네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Snow와 Benford(1988)는 사회운동의 틀정렬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잠재적 참여자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체계의 성격과 운동조직의 틀정렬 활동이 잠재적 참여자들의 ‘생활세계’와 일치하는 정도 등을 들었다.

다섯째, Melucci(1989)에 의해 특히 강조된 바 있는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의 형성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집단행동 자체를 행위자들이 “의미를 창출하며 의사를 소통하고 협상하여 의사를 결정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은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집단 내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즉 운동집단은 스스로를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공통된 견해와 공유된 목표, 그리고 행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 등을 발전시킴으로써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해야만 성공적으로 집단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의 연구성과들은 모두 동원의 상징적, 문화적 측면과 사회심리학적 과정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접근들은 각각 어느 정도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다. Gamson 등은 대중매체 등에 의한 공론화 및 여론화과정을 통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Klandermans와 Snow 등은 집단행동조직에 의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persuasive communication)을 강조하고 있으며, McAdam과 Melucci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집단의식에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임희섭, 1999: 133).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관점에서의 접근,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심리적 동기에 관심을 둔 접근, 역사적 조건을 중시한 접근, 개인들이 비용과 이득에 대해 합리적 계산을 한다는 접근, 자동동원의 가능성 여부와 그 정도에 관심을 둔 접근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신사회운동론과 구성주의이론이 제안되면서 집단행동이 가지는 집단적 정체성의 추구, 범계급적인 사회적 범주, 급진적 저항의 전술 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가지는 특성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집단행동의 특성이 최근의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대응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역할을 도출하는데 있다.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성윤과 문성만(1998)은 제주 종합사격장 건설반대운동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 단계 지역주민운동의 특성과 그 변화하는 모습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광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개발업자, 지역주민, 지방정부의 대립과 갈등 과정을 알아보았다. 특히 지방정부의 대응방식 변화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주민의 일부는 개발을 낙후된 농촌공동체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인 반면, 일부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내세워 반대하였다.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원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에게 개발과정으로부터 배제와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이익의 미실현, 생활환경 파괴 등을 알림으로써, 자원동원이 한계를 ‘농촌공동체’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극복하고, 운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운동의 활성화는 지방정부를 ‘개발의 후원자’에서 ‘갈등의 중재자’로 바뀌게 만들었다. “제주도열린민원법정”에서 지역주민과 개발업자는 각각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결국, 사업을 연기시켰고, 경제위기상황이 닥치면서 난산리 주민들은 사격장 건설반대운동을 달성할 수 있었다.

윤상현과 박석희(2006)는 지역 내외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은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갈등의 원인과 결과 등 갈등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관광개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이슈, 갈등관계 형성지역, 갈등원인, 갈등주체, 갈등수준, 갈등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익독점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원인은 생존권 확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이익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갈등의 주체는 지역주민과 중앙정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갈등수준은 생존권 문제와 결부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출을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 갈등의 관리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사점으로 ‘갈등영향평가’의 도입과 합의형성기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신명석과 김남조(2008)는 농촌관광사업을 시행하는 농촌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의 심리적 갈등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갈등의 유형과 인과관계 및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해집단의 갈등구조로 지역주민과 방문객, 지역주민과 행정단체, 지역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갈등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 갈등과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고 소득이 높은 집단이 농촌관광사업을 더 잘 이해하고 협조적이라고 하였다. 시사점으로 성공적인 농촌관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방문객과 농촌의 지역주민 사이에는 좀 더 많은 의사소통채널이 필요하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마을회의 개최 및 공청회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주로 갈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신명석과 김남조(2008)에 의하면,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이해집단간의 상호 의견대립이나 이해부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이해관계자의 입장 중 하나로써 갈등이 일어나는 주체로 보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집단행동 그 자체로 지역주민집단적인 입장과 성향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지역주민은 그 지역발전의 주인이자 참여자의 입장에 있음

을 중시하고 진실한 참여, 긍정적, 발전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혁명, 시위, 사회운동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주민의 행태를 기존에 정립된 집단행동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진 것은 드물다.

이상철(1995)은 제주도의 개발정책과 주민들의 태도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민운동이 개발에 기여한 바를 밝혔다. 첫째, 의도한 바를 일정하게 달성한 것이 있다.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개발을 완전히 저지시키거나, 주민의 의사를 부분적으로 관철시켜 수정시킨 사례가 있다. 둘째, 그 동안 개발을 주도해온 국가와 독점대자본에게 앞으로는 과거처럼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셋째, 개발에 무저항적이었던 주민들이 스스로가 개발의 주체임을 각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위의 3가지 시사점을 밝히며 합의에 의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아래로부터의 발전전략이 필수불가결한 시점임을 주장하였다.

Hwang, D.(2009)은 관광학의 맥락에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 수준의 지역사회 반응을 탐구하였다. 제주도의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신문 분석과 대화형식 인터뷰를 병행한 질적접근방법을 수행하여, 6개의 공통된 현상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집단행동은 공청회, 주민회의, 공식조직, 탄원서, 시위, 법적조치에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둘째, 집단행동은 지역사회의 유대감 강화에 유용하다. 셋째, 집단행동은 지역사회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추진력과 역량을 부여한다. 넷째, 강한 커뮤니티 연대감은 집단행동의 효과를 이끌었다. 다섯째, 집단행동은 커뮤니티의 오래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발전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사회학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지역사회의 집단행동이 어떻게 관광학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과 그 역할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관광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Burawoy(1991)는 현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그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는지 가능한 한 일관되게 윤곽을 잡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사전에 문헌을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급선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증조사를 하기 전에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론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관광개발(Harrison, 1988; Butler, 1992; Gunn, 1994; 김남조, 2001; 엄서호, 2007)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관광개발의 개념과 현재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집단행동을 ‘다수 개인’이라고 보고 지역주민의 태도(Eagly & Chaiken, 1993; 고동완·정승호, 2004; 김남조, 2001; Allen et al, 1993)와 관광영향(고동완, 1998; 고동완, 2001; 김사현, 2001; 고동완·정승호, 2004; Carmichael, 2000)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지역주민의 태도가 관광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태도는 집단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의 다양한 개념(Lang & Lang, 1968; Blumer, 1969, Smelser, 1962; 김욱, 1993; 임희섭, 1999)과 연구동향(Mark, 1970; Weber, 1972; Obershall, 1978; Snow, 1986; Melucci, 1989; Mueller, 1992; Tilly, 1988)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집단행동의 개념과 연구되어온 집단행동의 동향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이해할 것인지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내용분석을 위해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지의 관광개발 과정을 지역언론보도, 문헌자료, 인터넷 자료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광개발의 과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 관광영향 그리고 집단행동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 조사대상지에 비추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대상지는 활발한 관광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제주도를 선정하였고, 지역언론보도를 분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집단행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동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예래동의 관광개발이 시작된 상황에서부터 출발하기 위해 1980년 이후로 정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서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있고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협력과 감시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적자료수집을 위해 활용한 사례연구(case studies)는 촌락, 가족, 또는 비행청소년 집단 같은 몇몇 사회현상의 하나 또는 몇 개 안되는 예에 초점을 맞추는 심층연구를 말한다. Ragin과 Becker(1992)에 의하면, 하나의 ‘사례’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그 용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연구 중인 사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일정기간일 수 있다. 어떤 것의 특별한 한 가지 사례에만 주의 기울이도록 제한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사례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류학자가 문자가 없는 부족 문화를 기술할 때와 같이 기술적(descriptive)인 것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한 심층연구는 지역 연구가였던 Robert와 Heley Lynd(1937)나 W. Lloyd Warner(1949)가 미국 소규모 지역의 사회계층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고자 할 때와 같이 설명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성호 등, 2007: 414에서 재인용).

2. 심층면접조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래동의 일반현황 및 역사, 예래동의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에 대한 언론보도내용과 민원자료 등 관련 문헌을 고려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지역 대표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광개발의 다양한 상황변화와 지역주민의 수많은 태도변화를 분석하기에는 계량화된 설문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의 집단행동에 관한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질적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묻기가 난해한 질문이었던 관계로 면접 초기에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면접 초기에 연구목적에 대한 언급만 하고, 본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개방형식으로 질문한다. 그리고 면접대상자의 관련지식수준에 맞추어 관광개발의 상황에서부터 점차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자유대화 형식으로 진행한다. Herbert와 Riene Rubin(1995)은 “질적면접 설계는 바위에 미리 박아 놓은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탄력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라고 기술한다(고성호 등, 2007: 427에서 재인용). 따라서 대화 중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고정된 질문이 아닌 대화의 흐름에 맞춘 질문을 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면접자의 신분을 파악하여 대화내용에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을지 분석한다.

예래동 내에서 개발대상지 인근의 지역을 두루 조사하며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이 진행 중인 관계로 면접을 꺼려할 것을 예상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로 대답을 유도하며, 대화 중 후반에는 몰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 본 연구가 면접대상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유출할 것을 약속하고 연구자의 신분을 상기시켜 면접에 대한 내용이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쓰여질 것을 약속한다. 5분 이하의 면접은 기록에서 제외하고, 각각의 면접은 면접대상자의 적극성에 따라 약 15분에서 2시간 가량의 시간을 소요한다. 진지하고 솔직한 면접을 통해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한다. 면접내용은 면접대상자의 허락을 얻어 모두 녹음한 후 전사작업을 거쳐 문서화하고 면접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상황을 필드 노트에 작성한다. 면접대상자들은 면접 내용이 알려질 경우 지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실명을 밝히기를 극히 꺼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신뢰도를 위해서 성별, 연령대, 인터뷰 시작 시간 그리고 관광개발과 관련된 직업만 언급한다.

주요 질문 사항은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하며, 지역의 대표자들에게는 주도 하였던 집단의 역사와 성격에 대한 대화로 시작하여,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대답하도록 유도한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과거 집단행동의 상황에 대한 대화로 시작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정도, 집단행동의 참여에 따른 성과, 개발의 방향 등을 대답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질문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것을 염려하여, 모든 질문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여 분석자료로 쓰일 수 있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역할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원활하게 관광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집단행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예래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예래동에서 2009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논짓물에서 예래생태지역 해변축제가 열려 사전답사를 겸하여 참가하였다. 예래동의 지형·지세를 파악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을 찾았고, 지역주민들과 JCD 직원을 찾아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관광영향과 주민들의 태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집단행동이 활발히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조사에서 필요한 질문항목, 질문형식, 질문대상 등을 파악하였다.

2009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역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주민으로 나누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래동 주민자치센터와 새마을금고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동장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시작하여 지역의 대표를 연결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 녹음을 하였고, 동시에 필드노트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에 응해준 사람들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장, 통장, 주민비상대책위원장, JDC 직원, 자치센터 직원, 시공사 직원, 전 부녀회장, 청년회원, 초등학교 선생님 등으로 마을 각 계층의 지도자와 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2009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표자들을 위주로 집단행동의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듣기위해 추가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2차 조사에서 무분별하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던 것에 비하여 3차 조사는 2차 조사에서 인터뷰를 못했던 대표자만을 선정하여 접근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예래주민자치위원회」의 명단에 올라온 각계의 대표자들 중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들에 대하여 연락하여 면접의사를 물어보았다. 그 중 적극적으로 질문에 응해주신 분들을 선정하고, 접근하여 심층면접을 승낙받았다.

<표 3-1> 면접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특성

구 분	성 별	나 이	입 장	인터뷰 일시
M1	남	40대 초반	주 민	00 : 24
M2	남	50대 초반	대 표 자	00 : 56
M3	남	40대 후반	대 표 자	01 : 01
M4	남	50대 초반	주 민	00 : 23
M5	남	40대 중반	대 표 자	00 : 25
M6	남	40대 중반	주 민	00 : 37
M7	남	40대 초반	주 민	00 : 33
M8	남	40대 초반	주 민	00 : 49
M9	남	30대 후반	공 공	00 : 41
M10	남	40대 후반	공 공	01 : 33
M11	남	30대 중반	주 민	00 : 34
M12	남	60대 초반	주 민	00 : 24
M13	남	40대 초반	대 표 자	00 : 44
M14	남	30대 중반	주 민	00 : 27
M15	남	50대 후반	주 민	00 : 21
M16	남	60대 초반	대 표 자	02 : 21
M17	남	50대 초반	대 표 자	01 : 36
M18	남	50대 중반	대 표 자	02 : 49
M19	남	50대 후반	주 민	00 : 13
M20	남	60대 후반	주 민	00 : 12
M21	남	30대 초반	주 민	00 : 12
F1	여	20대 후반	주 민	00 : 13
F2	여	30대 중반	주 민	00 : 25
F3	여	30대 초반	주 민	00 : 20
F4	여	30대 후반	주 민	00 : 23
F5	여	40대 중반	대 표 자	00 : 23
F6	여	40대 초반	주 민	00 : 11
F7	여	30대 초반	주 민	00 : 27
F8	여	30대 후반	주 민	00 : 11
F9	여	40대 후반	주 민	00 : 15



4. 분석방법

1) 내용분석의 개념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집단행동의 긍정적인 영향과 역할은 질적연구방법으로 밝혀내고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에서 말하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정성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은 자료수집 방법이자 자료분석 방법으로 인간의 행태를 직접 관찰하거나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하지 않고 조사자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Babbie(2001)는 “내용분석은 신문, 잡지, 편지, 전자메일 등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연구과정을 총칭한다”고 하였고, 김광웅(1999)은 “메시지가 지닌 특징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진의를 추론하는 기법”이라고 하였다(김사현, 2007: 195에서 재인용).

내용분석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분석하는데 특별히 유용한 방법으로서, 예컨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고 말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준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곤 한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개개인들을 관찰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분석을 통해서 더 잘 얻을 수 있다(고성호 등, 2007: 448). 오익근(2000)에 의하면, 내용분석은 사회과학에서 가존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이 타당성 있는 방법일 때가 많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연구문제라야 하는데 문헌연구법이 아니거나 탐구할 수 없는 주제이거나, 또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다른 자료수집 방법보다는 문헌연구가 더 효율적일 때 사용한다.

내용분석에는 1차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2차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회과학에서는 피조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간접적이고 2차적인 자료에 대한 수집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각종 문헌, 신문, 잡지, 공식 기록문서, 서한, 작문, 사진, 연설문 등 각종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조사하여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를 분류하거나 빈도수를 측정하여 이들 속에 담겨진 어떤 속성을 파악해 내는 방법이다. 직접적인 인터뷰나 연설, 대화를 현장에서 녹취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있는데, 이는 (서베이를 통한) 1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예이다(김사현, 2007: 195-196).

내용분석방법은 양적, 질적 분석을 병용하고 있다. 양적인 분석은 피상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 메시지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질적 분석에 치우치면 연구자의 주관의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성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내용분석이 지니는 원초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나 실험조사를 적용할 수 없는 주제를 연구할 때 유용한 도구이다. 관광정책의 분야를 세분화한다면, 예를 들어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태도를 사설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오익근(2000)에 의하면, 대표적인 일간지 사설을 시대별로 추출하여 사용하고, 분석유목으로는 보도방향(부정, 중립, 긍정), 설득전략(권유, 위협), 해결주체(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내용분석의 장단점

내용분석의 장점은 첫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성이다.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진을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다. 분석하고 코딩할 자료 또는 내용이 있다면 내용분석은 언제고 시도해 볼 수 있다. 둘째, 외부적 환경요인(규정, 경제, 문화)과 정보원천 특징(매력, 신용도, 호감도)이 메시지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의 본

질과 영향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를 낳게 하는 출발점으로 사용된다. 넷째,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지속적 과정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분석대상에 어떠한 영향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개입적 조사방법이다(고성호 등, 2007: 463).

단점으로는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등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하여 연구결과의 일반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론을 적용하기 힘들다. 내용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목체계인데 유목이란 내용분석을 하기위한 기준으로 이 체계가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연구주제와 문제에 따라 다르다. 오익근(2000)에 따르면 내용분석 방법의 단점을 염두에 두고 이론을 적용하여 타당한 유목을 개발해야 훌륭한 연구가 된다. 분석유목의 개발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주관적으로 유목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떻게 연구문제에 맞게 유목을 구성하느냐가 연구의 관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명목척도로 측정되기에 추론통계를 하는데 제한이 있다.

3) 타당도와 신뢰도

현장연구에 관해서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 사이에서 고민하곤 한다. 이는 신뢰도와 타당도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깊이(타당도)를 선호하여, 자신들이 관찰한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추구하곤 한다. 하지만 표준화된 설문을 사용하는 서베이 조사의 경우에는 깊이보다는 폭이 선호되어, 현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 또는 타당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곤 한다.

타당도와 신뢰도의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내용분석은 장단점 모두를 지닌다. 특히, 기록된 내용 그 자체를 분석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분석할 경우엔 타당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신뢰도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용분석은 비교대상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어서 일관성 있는 코딩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현장조사의 경우엔 일단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관찰과 코딩의 일관성을 아무리 기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성호 등, 2007: 463).

현재적 내용(manifest content)은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 내용을 말하는데, 이것을 코딩하는 것은 마치 표준화된 설문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방법은 코딩이 쉽고 신뢰도도 높다는 장점을 보이며, 연구결과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정성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알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볼 때에는 타당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잠재적 내용(latent content)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내용분석에서는 잠재적 내용도 코딩할 수 있다. 나태준(2003)은 내용 분석연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내용의 해석은 ‘언론보도’라는 분석대상의 성격상 ‘대화’나 ‘문학작품’ 등에 비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고 하였다. 잠재적 내용을 코딩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의미를 포착하는 데에는 의당 유용하지만, 그 같은 유용성은 이해의 폭 또는 신뢰도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특히 코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닐 때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개념 정의 및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한 사람이 선정적이라고 코딩한 어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코딩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혼자서 코딩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정의와 기준이 일관적으로 사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연구결과를 읽는 사람이 연구자가 사용한 정의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현재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 두 가지를 모두 코딩하는 것이다(고성호 등, 2007: 455-456).

제2절 조사대상지

1. 조사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발전적인 대응전략으로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집단행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제주도는 1963년 제주도에 자유항 건설을 구상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광지화를 추진하여왔고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집단행동에 있어 일제강점기부터 끊임없는 역사를 갖고 있다. 제주도는 외부로부터의 수많은 침략과 거친 비바람과 같은 거센 날씨로 유명한데, 이런 연유로 제주도민들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고자 하는 강하고 역센 성질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도 내, 외부적으로 협력하려는 의지로 이겨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집단행동은 지금까지 좁은 곳에 한정된 특정사안에 관한 것이 지배적이었다.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는 도시빈민운동이나 지역개발 반대운동에 치중되었고 최근에 와서야 일상생활 영역에서 시도되는 주민운동이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정사안뿐만 아니라 단위 전체에서 전 도민이 관심을 갖고 전체의 개발방향에 반성과 논의가 활발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변화의 추세를 엿보는데 유리한 지역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 주요 일간지인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의 소리(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도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관광개발 사례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성사업,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병원 조성,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지 선정은 서귀포시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래동은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을 갖추고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예래동은 새로운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둘째, 예래동은 생태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이전에 최우수 자치센터로 뽑힌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집단이 잘 형성되어 있고 많은 경험이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또한, 생태마을전략으로 인해 사례지역은 기존에 지배적이던 위로부터의 개발방식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개발방식 사례로 평가되는가 하면, 개발의 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이 포함된 관광개발을 지향함으로써 차후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최병길, 2000: 374; 오정준, 2003: 621; 염미경, 2007: 9).

셋째, 예래동은 집단행동에 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박탈감과 소외감을 경험하였고, 90년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에서 대규모 반발시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97년 오우수처리장 증설,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들썩이고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예래동은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고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제주도의 현황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며,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제주도는 1200여 년 전 3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져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물론 다른 세계와도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특한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은 물론 이국적인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함은 제주도의 독특함과 이국적인 자연을 즐기러 이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1950년대까지 제주지역은 별다른 개발사업이 없는 농업위주의 지역이었으나, 1960년대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훼손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도 중앙 정부의 계획 하에 대형 리조트 개발에 들어간 중문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은 당시 거의 개발되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이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1992년 1월 공포되었다. 특별법의 목적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제주도는 국가 주도로 한국 최대의 관광지로 개발되어왔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계획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그리고 2006년 7월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염미경, 2007: 3). 또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실시되고, 2007년 유네스코에 의하여 세계자연유산보존지역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지정된 바 있다.

제주도의 관광공간은 현재 수직·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관광공간은 해안 경승지나 한라산과 같이 수려한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적정장소에서 형성되었다. 그 결과 관광지의 입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관광객의 기호가 다변화되고 일상생활과 관광간의 경계가 소멸됨에 따라 관광지가 특정장소로 분화되어 발전하지 않고 일상장소를 따라 탈분화



(de-differentiation)되어 입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관광지는 수직·수평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제주도 전역이 관광지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생태, 문화, 체험, 녹색 등의 대안적 관광유형을 표방하고 있다(오정준, 2003: 611).

제주관광을 휴양지주기모델(the resort cycle model)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객수의 증가가 'S'자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관광객이 100만을 돌파한 1983년 이전까지를 도입기(involvement or introduction), 88올림픽 이후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400만을 돌파한 1966년까지를 성장기(development or growth)라고 할 때 96년 이후 제주관광은 성숙기(stagnation or maturity)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최병길, 2000: 374).

집단행동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부터, 제주도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집단행동이 활성화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증가, 독점자본의 지배강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 집단적 수비수단의 만성적 부족이다. 둘째는 유신체제의 붕괴로 인해 불만 표출이 용이해지고, 1980년대에 대중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된 것이다(정근식, 1991: 65; 염미경, 2007: 9).

제주도에서는 관광개발에 대해 1987년 이전에는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상실하게 된 지역의 미미한 대응이 산발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항쟁 후 정치지형이 변화하면서 제주에서도 집단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본격적인 운동은 1988년 '탐동매립반대운동'에서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거도적인 관심을 야기하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면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개발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던 도민들은 이에 큰 자극을 받아 의식의 일대 전환을 겪게 된다(조성윤·문형만, 1992: 227).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반대'는 이 운동에 이어 일어난 대규모 운동이다.

이처럼 제주도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주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

기 시작하는데,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개발, 외지자본과 정부가 주체가 된 외생적 개발에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으로, 개발특별법 제주도시안이 공개된 1990년 8월 27일부터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1991년 12월 18일까지 전개되었다. 예래동에서의 주민운동도 제주도 개발논란이 한창이던 1990년대로, 사례 지역의 갯각이라는 곳에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된다(염미경, 2007: 10). 이후 다양한 유형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3. 예래동의 현황

예래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1915년 도제 실시(島制實施)에 따라 서귀는 제주도 우면, 중문은 좌면이 되었다가 1935년에 서귀면과 중문면으로 개칭하였다. 1946년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신설됨에 따라 남제주군 서귀면, 남제주군 중문면이 되었다. 1956년에 서귀면이 서귀읍(西歸邑)으로 승격하고 1981년에 서귀읍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市)가 됨으로써 색달리(里)·상예리·하예리가 색달동(洞)·상예동·하예동으로 바뀌었고, 행정동으로 예래동을 설치하였다. 행정동인 예래동은 법정동인 색달동·상예동·하예동으로 이루어져 있다(예래동 홈페이지).

예래동은 서귀포 시청으로부터 서측 약 15Km 거리에 위치하며 서귀포의 동서간 간선도로인 국도 12호선(일주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어있다. 동측은 예래천으로 중문관광단지와 경계를 이루며 내부는 용천수원의 대왕수천이 입지하여 계곡형 지형을 형성한다. 서쪽은 군산(335m)이 솟아있고, 안덕면과 접하며, 창고천이 남쪽으로 흘러 남해로 들어간다. 남측은 구릉형 경사지로서 화산섬의 해수경계부분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북고남저 형상을 이루고 있다. 북측은 애월읍에 접하고, 한라산 연봉인 녹하지악(624m)·모라이악(501m)·우보악(302m)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차례로 솟아 있다. 예래동은 지역 내에 중문관



광단지가 들어설 정도로 제주도 내에서도 경치가 좋은 곳으로 산과 바다 그리고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예래동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마을을 묘사한 글이다.

“예래생태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자연환경보존에 힘쓰고, 예래지역 그대로의 생태를 가꿔나가는 지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래지역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해안절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곳곳에 보물찾기 하듯 숨겨져 있지만 동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문화 유적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농사를 하고, 여러가지 밭농사를 하는 전통적인 농어촌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주민들의 정성으로 예래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반딧불이 보호지역도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곤충과 식물들이 지역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중략 ... 지역 안에서 논짓물 해변 축제나, 군산 산책로 걷기대회, 감귤따기 체험 축제와 같이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예래를 더욱 널리 알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예래 안에서 여러가지를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kang9199의 naver 블로그, 2006)

예래동의 연평균기온은 17℃전후로써 강풍이 많으며 돌발적인 기상 변화가 많다. 하천은 대체로 유량이 풍부하고, 수질도 양호한 편이나 하상이 바위와 돌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어류의 서식환경은 비교적 단조롭다. 지역을 흐르는 10여개 하천과 용천수를 중심으로 18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앞바다에는 120여종의 어패류가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생태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예래동은 감귤과 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있다. 2002년 생태체험지역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생태체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추진 중에 있다.

예래동은 서귀포시의 12개동 가운데 가장 작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유서깊은 마을이다. 선사시대부터 취락이 입지했었



으며, 역사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 서귀포시의 자연취락 43개 가운데 10개가 예레동에 입지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인구 3,517명으로 1,40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문화재로는 고인돌, 환해장성, 당포연대, 동굴유적지, 당 등이 있고 현재 신석기 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적지를 발굴 중에 있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중 고인돌군은 제주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축제로는 매년 개최되는 논짓물 해변축제, 겨울바다 펭귄축제, 군산산책로 걷기대회 등이 있으며, 지역의 축제로써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이 중 논짓물 해변축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각종 공연과 논짓물 수영, 널치잡기, 전통문화체험, 지역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제4장 결과 및 고찰

제1절 예래동의 관광개발 과정과 집단행동의 특성

1.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선정 이전

1) 관광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집단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주 목적이다. 따라서 예래동의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지역언론보도와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의 과정을 연대별로 나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집단행동의 특성을 도출할 것이다.

예래동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에 기인한다. 중문관광단지는 1970년대의 계획을 필두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1978년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서귀포시 색달동과 중문동 일대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 중문관광단지 계획대상지의 토지 중 80%가 예래동 주민이 소유하고 있었으나(M12) 예래동의 주민들은 관광단지의 개발 및 관리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국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를 헐값에 매도할 수 밖에 없었다. 토지를 매도한 주민들은 삶의 형태가 전환됨으로써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농업과 어업의 1차 산업에 종사한 관계로 삶의 터전이자 생활공간이 토지와 바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지 조성으로 인해 생활공간을 일순간에 박탈당했고, 이는 곧 다수의 지

역주민들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또한 토지 매도금으로 생긴 목돈을 탕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주민도 나타났다. 한편 관광단지에서 파생된 일자리에 취업하더라도, 취업의 질이 매우 낮은 단순 일용직에 종사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한편 중문관광단지의 특성상 고급 숙박업소와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은 단지 내의 시설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는 관광객과 지역주민과의 위화감을 생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양자 간의 공간적 격리를 가속화시켜, 종국적으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오정준, 2003: 619-620). 또한 대단위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객 및 관광시설물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예래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골프장, 광역소각로, 공설묘지 등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10월 예래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하수종말처리장 조성 문제로 촉발됐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은 예래천 하구 앞 바다 50m 가량을 메워서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동쪽으로는 중문관광단지 해안까지 1km에 걸쳐 30m 높이의 주상절리대가 있고 서쪽으로는 고려시대 삼별초 항쟁 이후 축조된 해안가 성곽인 환해장성이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성과 역사성이 풍부하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역사상 최초로 가장 격렬한 집단행동이 발생하였다. 발생원인은 사전타당성 조사 및 주민설명회도 없이 서귀포시의 여러 동 중에 인구가 가장 적다는 이유로 시설을 조성하려는 힘의 논리에 반발한 것이다(M5).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중 몇몇이 구속당하였고, 과격한 반발행동에 대한 피해자가 속출한 채 하수종말처리장은 물으로 100m 정도 올려서 지어지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다시 1990년대 중반에 대두된 것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입지문제였고 조사대상지 내 색달동 일대가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전개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고 일부 주민들이 입지에 찬성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이는 행정당국이 입지예정지구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약속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시설입지에 찬성한 것이다.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입지에서 주민들, 특히 입지예정지 자연부락인 색달동 주민들이 초기 입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중문관광단지 내 해수욕장에서의 상업활동 권리를 주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염미경, 2007: 11). 또한, 쓰레기매립장이 예래동에 조성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산남주민협의체」를 조직하여 대응하였고 집단행동의 요구에 따라 사우나가 건설되었다. 「산남주민협의체」는 현재까지 시설을 관리·유지를 하면서 현재 색달동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복지마을을 이루어낸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1997년 관광공사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중문관광단지와의 연계처리를 위한 오우수처리장을 증설하게 되어 또다시 환경문제가 불거졌다. 환경단체가 조직적인 반발을 하였으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반발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진행되었다. 때문에 지역적인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였고 집단행동의 요구에 따라 체육공원, 해녀탈의실 등을 조성해주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복지시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M13).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환경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된 뒤 1년여의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래환경연구회」가 결성(1995)됐고, 13명의 회원으로 발족하였다. 소규모 연구회지만, 이는 제주도 내 유일한 마을 단위 환경단체이자 NGO 단체였다. 이들이 추구하는 마을이란 개발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면서 개발의 방향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여야 하며 한적한 농촌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주민 주체의 개발 방식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잃지 않는 마을을 목표로 하였다(최병길, 2000: 373).

그 후 주민들은 환경운동을 대안운동으로 바뀌어나가겠다며 2002년 「예래생태지역위원회」를 만들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위원회로는 아직도 제주도에서 유일하다. 2002년 6월 전국 최초로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예래환경연구회」의 힘이 컸다. 같은 해 농림부와 해양



수산부로부터 각각 녹색농촌체험시범지역, 관광어촌체험지역로 선정됐다.

2) 집단행동의 특성

1990년 10월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방적으로 예래동에 건설되면서 지역주민의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나타났다. 과격한 시위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였으나 개발을 막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주민들의 단결력과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유서 깊은 마을의 역사성으로 인해 이미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주민은 집단행동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래환경연구회」가 결성되었다. 이 집단은 환경단체의 필요성을 지각한 지역주민들이 만든 제주도 유일의 NGO단체였다. 이것은 관광영향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주민의식 향상 등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변화되어 제도적인 형식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정체성 보존, 지역공동체 강화, 환경보존,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자생적으로 나타난 집단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예래동은 추후 생태체험지역 지정,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 등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며 예래동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1997년 오우수처리장 증설과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집단행동이 나타났다. 이때 나타난 집단행동은 1990년의 경험으로 인해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 오우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댕가로 예래동에 체육공원과 해녀탈의실이 설치되었고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댕가로 사우나가 증축되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공공시설이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사우나는 당시 집단행동을 하였던 「산남주민협의체」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조성시설에 대해 관리·유지의 기능을 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대응양상은 발전과정을 거친다. 특히, 예래동은 집단행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살아

있는 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시행승인 이전

1) 관광개발 과정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승인되면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출범하였다(「제주일보」, 2008년 8월 23일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활용한 국제수준의 주거형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21세기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휴양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003년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약 22만평의 부지에 주거시설, 의료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01년 3월 건설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지원단은 민주당 정책기획단과 제주도 추진기획단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국내외 고소득 퇴직자를 위한 해변형 콘도미니엄과 생활편의, 지원시설, 연계 주거지역 등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2002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승인되었다(「디지털포럼」, 2006년 10월 18일자).

한국토지공사가 2003년 1월 제안한 계획에 의하면, 예래마을 일원 77만 8,800㎡에 빌라형 및 콘도형 주거시설, 골프장(9홀)·수영장 등 운동시설, 의료 및 상가시설, 생활지원시설 설치를 제안했고 200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2004년 4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왕수천을 매립한 골프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에 밀려 수정작업에 들어갔고(「제민일보」, 2003년 10월 1일자),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7대 선도프로젝트에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선정하고 대상지를 예래동으로 정하였다.

2004년 4월 3개 공인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대상지 내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토지보상 문제는 집단행동을 발생시켰다. 2003년 9월 22일 1차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협의체」(2003년 11월), 「토지구협의회」(2003년 11월), 「유원지외 지역 토지구협의회」(2004년 2월)가 설립되었다. 「토지구협의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해당 토지주들과 사전 협의없이 예래 유원지 면적을 당초 40만3000평방m에서 74만2600평방m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토지주들과 사전 협의없는 유원지 확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이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도 없었다”며 “당초 유원지 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제주일보」, 2004년 11월 10일자).

토지매입과정에서 공공에서 제시한 토지가격은 3개의 공인감정기관에서 토지가격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시세의 80%수준이었다. 그리고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 미개척지, 계곡의 토지도 매입하였고 나무 한그루의 경제적 가치까지 따져서 책정하였다(M9). 그러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서 초기에 토지매입과정에서 주민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공공사업임을 내세워 밀어붙이기 식 토지매입을 추진하였다. 개발대상지 면적을 당초 40만 3000m²에서 74만 2600m²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곳과 맞닿게 되었다.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토지구협의회」는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토지책정가격, 생존권의 위협,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토지 강제수용 등을 내세워 집단행동이 발생하였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362회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2/3의 보상합의율을 보였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백서, 2007). 2006년도 1월에는 재감정 평가 시행이 완료되었고, 동년 11월 토지확보율 100%를 달성하였다. 그 후 「토지구협의회」는 없어졌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고, 강제수용이긴 하지만 토지매입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4 8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관련 주민 혜택 및 관련사항을 설명하였다. 10월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등 실시계획 초안을 설명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요구 등 법적절차를 설명하였다. 또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를 협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주도, 서귀포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였다. 이 외에도 2004년도에만 10여 차례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노력하였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백서, 2007).

2005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래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통합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8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었다. 10월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었고 11월에는 국토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다.

2) 집단행동의 특징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개발초기에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토지주협의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예래동 지역주민의 내면에는 지역 정체성의 파괴, 외지인에 대한 이질감, 과거에 당했던 피해의식, 환경파괴에 대한 염려가 잔물결처럼 일기 시작하였고, 한편으로는 주민 생활의 질 향상, 공공 서비스 개선, 지역홍보효과 등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M1, M4, M13, F5, F6).

개발 초기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개발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이었다. 그들은 불합리한 토지책정가격, 생존권의 위협, 조상의 토지강제수용을 내세워 「토지주협의회」를 조직하여 사전협의를 없는 일방적인 개발에 대하여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시도하였다. 공권력 앞에 반발은 무의미함을 이미 경험하였던 지역주민들은 고용창출과 자녀들의 교육 보장을 요구하였다. 결국 1,000여회의 협의 끝에 토지확보율 100%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주협의회」는 없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경제적 이득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토지가격에 내어주었고, 고용창출과 교육보장을 내세우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요구하였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토지주협의회」의 지역대표 몇몇이 먼저 막대한 손해를 입으며 스스로 토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M16, M17). 이는 경제적인 득실보다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녀세대의 고용과 교육 보장을 더욱 중시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특징으로 공동체의식, 협동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하였음에도 마을의 주요 이슈가 토지매입에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져 온 지역의 공동체의식과 단합심에 의한 것이다.

3.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시행승인 이후

1) 관광개발 과정

2005년 11월 사업시행승인이 완료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집단행동은 둔화되었고(M16, M17),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측에 14개의 항목을 요청하였다. 주요내용은 대체로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 기반시설 증설 등의 항목을 지역주민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제출한 것이다(M13). 하지만 공공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2006년 7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개발센터는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10개 분야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006년 지역 주요 이슈로 지역 노인회 야유회 개최, 논짓물 해변축제, 지역 전체 체육대회, 감귤따기, 국내 선진사례 답사, 어촌계 지원 방안 검토,

논짓물 수변공원 개발 등 다양한 행사와 개발이 있었다. 이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이 다양한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2007년 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 조성사업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가졌고 4월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를 접수하였다. 2007년 7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관련예산이 중앙에서 대폭 삭감되어 토지를 매입의 난항을 이유로 개발사업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기업인 버자야(사)와 MOA(상호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2007년 8월에는 조성사업 일부 사업부지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대규모 유적지 흔적이 발견되어 공사가 당분간 불가능하였지만 2007년 10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와 MOA 개정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동년 10월 예래동 주민들은 그동안 JDC측으로부터 장학금 지원과 주민고용, 기반시설 구비 등 각종 건의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총회를 열고 착공식 공식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제주일보」, 2007년 10월 19일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버자야(사)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MOA 개정서를 체결하였으나 11월 초고층빌딩이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제도로는 버자야측이 계획하고 있고 제주도청이 허가를 긍정 검토하고 있는 240m 고층빌딩 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후 조망권 확보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초고층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버자야(사) 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0m 제주도 최고의 전망 스카이라운지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건축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변경안에 대해 내세운 이유는 15m 높이의 100~200m 긴 장방향으로 조성할 시 오히려 실제 조망권과 경관 등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카지노와 쇼핑시설, 근린 종합복합시설 등이 추가되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집단행동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상응하는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잃는 것이 있는 만큼 얻는 것을 달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한 요구였다(M13). 그리고 10월 23일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건교부 차관, 버자야그룹 회장, JDC 홍보대사 등이 참석하여 착공식은 진행되었다(「노컷뉴스」, 2007년 10월 23일자).

2008년 11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일방적인 계획 변경에 대하여 용천수 고갈, 토지가 변동, 카지노 도입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으나, 용역단과 전문가 그룹 등이 함께 조사를 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무마하였다(「한라뉴스」, 2008년 11월 10일자).

현재 관광개발이 완료되고 계획안이 변경·확정된 시점에서 JDC, 버자야,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3자회담을 매달 추진하고 있으며 14개 항목을 내세워 지역에서 잃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협상하고 있다(M9). 2008년 8월에는 마을 주민과 투자자가 하나되는 제주의 새로운 형태의 화합과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투자자와 마을 주민들의 상견례가 있었으며(「제주프레스」, 2009년 8월 19일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1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의 다토 빈센트 탄 회장이 제주를 방문해 “계획대로 제주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예래동은 지역 활성화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예래동에서는 하예포구 일원에 생태캠핑장을 조성해서(「제주 타임스」, 2008년 12월 10일자), 캠핑과 연계하여 하예포구에 지역특산물인 어류와 해산물을 판매하고 캠핑장이용객이 스스로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왕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과 연계하여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주민들이 직접 제공할 계획에 있다. 또한 올레 8길과 연결되어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올레 8-1길을 조성하여 해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길과 연결하여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 또한 추진 중에 있다(M3). 또한 2009년 9월 예래동주민센터 벽면을 활용하여 예래 생태마을에 관광명소와 생태체험코스를



연결하는 홍보벽면을 설치하여 예래동을 홍보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태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소로 탈바꿈시켰다(「제주의 소리」, 2009년 9월 14일자).

2) 집단행동의 특징

2005년 11월 사업승인이 완료되면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들은 개발에 대한 반발을 하기보다는 개발에 협력하여 최소한의 선을 지키고자 나타난 집단행동이다(M18). 이들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 고용 증대, 지역주민 소득 증대, 기반시설 투자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주민 생활의 질 향상, 주민 문화활동 촉진, 지역홍보 효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등을 얻기 위해 협력하고 감시하는 입장에 서있다(M10, M13, M19, M20, F5, F9). 이러한 지역주민의 입장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바탕으로 대응하며, 제도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집단행동을 통한 일관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집단적효능감이 견고해졌다.

예래동은 생태지역로 지정된 바 있고 생태우수지역로 뽑힌 경험이 있을 만큼 자연이 아름답고 생태가 풍부하여 지역주민 대부분이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F2, F4, F5, M21). 휴양형 주거단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개발사업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2007년 10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래동의 자연환경을 크게 위협한 것이다. 반딧불이 보호구역이 개발대상지 내에 포함되어 있고 논짓물 해변축제 장소도 개발대상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 문제를 확대하였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태체험지역과 지역만들기를 추진 중이던 예래동에 이와 대치되는 대규모 인공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반발을 하였다. 그 후 초고층 빌딩과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가지고 올 영향은 미풍양속 저해, 범죄발생 증가, 교통체증 증가, 불건전한 주민의식 조장,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에

대한 염려에서였다(M1, M4, M11, F2, F4). 더구나 예래동은 안좋은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있다. 제주경마공원이 생기면서 도박중독자가 제주 전역에 걸쳐 생겨났고 예래동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예래동에서 집마저 잃고 떠나는 사람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조망권 또한 예래동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안고 살아가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었다. 또한 토지 매입시기에 나왔던 계획안과 승인완료 후의 변경안이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분노가 대부분의 주민들의 마음 속에 억제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관광개발에 대해 무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M2, M3, M11, M17, F7). 적극적인 반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무관심에 관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내에서의 집단행동은 지역주민들 간의 접촉이 잦아 서로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들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래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실제로도 지역주민은 군산산책로, 논짓물, 올래길, 생태캠핑장, 반딧불이보호구역, 갯각 등으로 지역을 알리는데 성공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시설과 발마추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절 지역사회에서 집단행동의 역할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개발에 대하여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얻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써,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된 집단행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관광개발과정에 따른 소규모 집단행동이 가지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사실을 지역사회론적 입장에서 검토된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규모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조명하였다.

1. 지역정체성의 보전과 강화

1) 지역정체성의 개념

정체성은 영어 Identity를 번역한 말로서 라틴어의 identitas, identicus에서 유래하였으며 idem, 즉 ‘동일하다’란 뜻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아이덴티티(identity)라는 개념은 원래 자아(self) 개념의 일부로서 처음 Mead(1934)에 의해 기술된 것으로, Erickson(1950)이 정신분석적 자아심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논리학이나 철학의 영역을 넘어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건축학 등과 같은 인간을 다루는 모든 학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서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정체성은 물리적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심리적인 요인이 정체성의 인지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하재명·박찬석, 1992). 유병림과 황기원(1992)은 정체성이 ‘이미지’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정체성은 결국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실체이기 보다는 그 실체에 대한 심상, 즉 ‘이미지’라는 추론이 도출된다고 하였다(오정학·고동완·김유일, 1999: 81에서 재인용).

최근의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강조(Melucci, 1989)하면서, 집단행동은 “의미를 창출하며 의사를 소통하고 협상하여 의사를 결정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정체성을 핵심으로 한다. 즉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고, 공유된 견해, 목표, 인식 등을 가져야 성공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은 지역사회가 겪었던 집단 노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과거의 집단행동을 통해 지역사회는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인지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역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집단행동을 통해 경험한 것은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게 한다. 즉 지역주민은 과거의 집단행동을 통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집단행동의 추후 효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지역의 노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예래동의 지역정체성

예래동은 고인돌, 바위그늘집터, 유물산포지, 환해장성, 당포연대, 동굴유적 등 청동기 시대 이래의 수많은 유물과 생태하천인 대왕수천과 사시사철 샘물이 솟는 논짓물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이다(「제민일보」, 2008년 6월 5일자). 예래동의 ‘이미지’는 조용함, 소박함, 친환경적, 보수적, 검소함, 단결력 등이 떠오르는 지역이었다. 최근에 들어 생태체험마을, 반딧불이 보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졌다. 지역주민은 이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주민면접종합). 그리고 지역주민은 집단행동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은 예래동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제주도 역사상 가장 큰 반발을 기록한 1990년 하수종말처리장 사건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채, 시설은 예정대로 조성되었다. 지역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나타났고,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컸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결과로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단합심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었다. 마을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기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특히 초고층의 빌딩들과 카지노 시설은 환경적·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설이었다. 이것은 또다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되었고 지역의 환경적·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대규모 시설에 대하여 반발하였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역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10여 가지의 요구사항을 내세워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지역 정체성이 변형되고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예래생태마을이랑 고층건물이랑 안어울리잖아요. 저희 마을에 지금 5층 건물도 없어요. 높아야 3층이고 높아야 2층이에요. 빌라도 3, 4층인데 고층건물은 좀 황당하겠죠. 아름다운 산과 반딧불이 보호구역과 고층건물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중략 ... 이걸(기존의 정체성) 개발해서 돈을 얻는 것도 수익금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래는 그렇게 해서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상태에서 굳이 개발을 하면서 어긋나는 것 보다는 이 상태에서 더 많이 보전하고 이것이 특화사업이 된다면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8)

“개발이 크게되면 될수록 우리 지역이 아닌것 같고 지역의 이미지와 동떨어지는것 같아요. ...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은 없지만, 지역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F8)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애들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곤충이나 그런 것이 그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제약되지 않을까요?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생활품이나 고급차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애들한테는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F3)

초고층 빌딩과 카지노 시설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집단행동은 적극적으로 협력과 조율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관광개발에 대응하여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문화적, 환경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관찰자와 감시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적·환경적으로 부정적인 관광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감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업주체인 버자야(사)는 최소한의 환경파괴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약조하였다.

“개발센터에 요청한 14개 항목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준공시점까지 협조를 하면서 협약한 부분이 있죠. ... 중략 ... 개발하더라도 환경을 보존할 곳은 하고 그런 것을 하죠. 개발하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M13)

또한, 예래동을 보면 지역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능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지 알 수 있다. 1990년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집단행동이 나타난 이후 지역주민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은 관광개발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 변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불거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게 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건 이후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및 환경보전의식이 성장하였고,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더욱 강해져 환경에 관한 관심을 부추겼다. 그 사건 이후 자생적으로 「예래환경연구회」가 조직되었고, 이 단체는 예래동의 환경을 지키고 나아가 예래동의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은 더욱 증진되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1990년

대 후반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예래동은 과거 집단행동 경험 속에서 주민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나가는 주창·창조형 주민환경운동으로서 생태마을전략을 구체화시켜나갔다(염미경, 2007: 12).

또한, 현재에도 지역주민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의 노력은 다음 면접에서 잘 나타난다.

“(대왕수천이) 지금 80%정도 개발이 되었어요. 지금 정자 같은 것을 해놓으니 작년부터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는데, 이젠 이 관광객을 마을에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요. 그쪽만 왔다가면 지역을 알리는 것은 되거나 주민의 직접적인 이득이 안돼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토속음식, 볼거리,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자라는 마음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 중략” (M3)

“올래라고 하면 큰 길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거기서 착안해서 8-1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해요. 올래코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코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분들(관광객)이 진짜 올래가 무엇인지 마을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M3)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예래동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예래동의 정체성은 변화와 생성을 거듭할 것이다.

3) 집단행동의 역할

지역주민 스스로가 관광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협조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사업주체와 해당지역이 상호발전관계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지역정체성을 보전하여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개발주체의 입장에서 지역정체성을 사업의 주요 테마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정체성을 보전하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정체성 형성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이룰 수 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관광개발로 인해 기존의 지역사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을 보전하고 강화하려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관광개발에서 지향해야 될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

2. 개인적 · 집단적 효능감 증진

1) 개인적 · 집단적 효능감의 개념

집단행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효능감과 같이 자아에 대한 개인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조(self-help)에 대한 인식, 또는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통제하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인식 등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역량강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Zimmerman과 Pappaport(1988)는 경험적으로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일반적 참여와 개인의 심리적 역량강화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Speer와 Hughs(1995) 역시 자신들의 지역사회 조직화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조직화된 행동, 그리고 개인의 발전 또는 역량 강화 사이에 상호적 또는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지정된 유형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방침들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역량에 관한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들이 개입하려고하는 행위의 유형에 대한 범위를 효과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인간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일에 보다 쉽게 관여하고, 그렇지 못한 일에는 쉽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의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포기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 과제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다.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은 능력(competency), 지배력(mastery), 통제 등과 관련하여 자기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촉구한다(곽현근, 2004: 393-394에서 재인용).

주민들의 자신과 관련된 역량에 대한 인식이 자기효능감이라면, 집단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 조직 내에서 인지된 집단적 효능감은 “전체로서의 한 사회체계의 수행능력(performance capability)에 관한” 집단 구성원들의 믿음을 나타낸다(Bandura, 1997). 지역과 관련해서 인지된 집단적 효능감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나의 전체로서 지역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행위의 방침들을 조직화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주민들의 판단과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Duncan et al, 2003; 곽현근, 2004: 393에서 재인용).

2) 예래동의 개인적 · 집단적 효능감

예래동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집단행동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역량강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집단행동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집단구성원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집단적 효능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래동은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로 마을 전역에 걸쳐 품앗이를 하였고, 주민들은 결혼, 상제 등을 함께 하였다. 특히, 1990년 하수종말처리장 조성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지역주민 전체가 하나의 협의체로 단합하였고 지역주민의 90% 이상이 운동에 참여해 공권력에 대항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입지계획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은밀하게 수립되면서

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입지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 내 갯각에 입지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집단행동에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은 역량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간의 단결력과 집단적 효능감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주민들끼리 집단행동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대응방법에 대한 교훈을 얻는 귀중한 사건으로 주민들의 머리 속에 기억되어 있다. 몇몇 면접자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해주었다.

“우리 예래동은 90년 10월 4일 역사적인 날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투쟁위원회를 운영했어. 그땐 막말로 투쟁이었어. ... 중략 ... 그때부터 우리 예래동 단합심이 세졌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경찰하고 맞서서 대항했지.” (M17)

“90년에 하수종말처리장 사건은 대단했지. 우리 마을사람 전부가 나서서 도로를 점령하고 화염병도 맞으면서 시위했었어.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많이 다쳤지 ... 중략 ... (그 후로) 사람들끼리 더 잘 뭉쳐. 우리가 뭉치는건 잘해.” (M18)

“개발하기 전에 예래동은 항상 단합도 잘 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사람들이 보기에 예래동은 그런 지역이라는 말을 들었죠.” (M13)

“이곳 지역주민들은 검소하고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 주민 자체 속성이 외부사람을 많이 꺼리는 경향도 있어요. 외부인으로 인해 마을의 정이 사라질까 염려됩니다.” (M21)

하수종말처리장 반발사건 이후 투옥되었던 사람들은 지역차원에서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에는 지역주민 모두와 어울려 살고 있다(M3).

그 후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난 오우수처리장 증설과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집단행동에서 그들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1990년의 교훈과

공동체의식으로 무장하여 혐오시설 조성에 대응하였고, 그 방식은 과격한 시위가 아닌 협력으로 지역의 공공시설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복지마을로 탈바꿈하여 관광개발에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2003년 예래동에 거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이 승인되었다. 이미 집단적 효능감이 충만한 예래동 주민들은 관광개발사업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지역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행위의 방침들을 조직화하고 실천에 옮기 위한 조치였다. 3천 여명의 지역주민의 의견이 세포조직처럼 통 단위의 회의와 동 단위의 회의를 거쳐 수렴되었다. 또한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통합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관광개발에 반영하려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예래동의 집단적 효능감은 더욱 단단해졌다. 즉, 주민들은 잠재적으로 공동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강화된 집단적 효능감은 관광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게 만들었다. 집단에 대한 믿음은 다음과 같은 면접 중에 잘 나타난다.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단합심이 더 잘되지. 갈등은 없어. 대부분이 합심해서 그런(JDC에 제출한 요구사항) 것이 나온거야.” (M16)

“(개발이 잘 되려면) 집단 인센티브와 재정적인 문제와 화합 이런건데... 해서 가장 관건은 마을만 뚫뚫 뭉치면 다 해낼 수 있다고 보는거지. 또 그러면 특성상 관에서도 도와주게 되어 있더라구.” (M2)

“예래동은 일정한 자생단체가 주도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모두 거기 일원입니다. 청년회, 부녀회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지, 하나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자기네가 속해있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지역 전체적

인 사업에 별도의 목소리를 안냅니다.” (M3)

“저희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로 처리하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수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런(개발로 인한 손해)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F1)

“(집단행동을 통해 무엇을 얻었냐는 질문에 대해) 정이지 정. 같이 대항하면서 미운 정, 고운정이 생겼어.” (M18)

과거로부터 강하게 형성되어있던 집단적 효능감은 지역개발의 사건을 함께 겪으며 더욱 강해져 있다.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함께 뭉쳐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 집단행동의 역할

예래동의 지역주민은 개인의 생각을 표출한다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역의 발전에 대한 잠재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관광개발은 집단적 효능감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순환고리가 완성될 것이다.

빈번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 간의 접촉 및 교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통제력이 강화되고 공동체의식이 강한 주민들의 집단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적 참여 기회를 주어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3. 지역애착심 향상

1) 지역애착심의 개념

이웃들이 서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상호교류가 없을 때 조직화되지 않는다(Perkins et al, 1990). 반면, 충분한 사회적 응집력이 있을 때,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화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공유, 그리고 유대감을 조장하고 반영하는 지역사회 응집력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집단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은 그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헌신하려는 의지를 만들어 낸다. 즉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애착심을 가진 개인들은 지역사회조직의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성향이 높다(곽현근, 2005: 352에서 재인용).

‘애착(attachment)’은 주로 아이와 부모,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로 적용되었지만,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장소성(sense of place)’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며 지리적인 환경을 인식하는 심리학적 단위로 태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었다(Jorgensen & Stedman, 2001; Shamai, 1991). 장소성은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환경심리관련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다(Jorgensen & Stedman, 2001). 이 중 ‘장소애착’은 그룹 또는 개인과 환경사이의 긍정적인 결속(Altman & Low, 1992; Williams, Patterson, Roggenbuck & Watson, 1992)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을 수반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만 연관지어지는 지역성(sense of community)과도 차이를 이루고 있다(최영희 · 이원철 · 이훈, 2005: 198-199에서 재인용).

‘지역사회 애착(attachment to the community)’은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 유대감(friendship), 정서(sentiment)와 같은 사회적 결속의 수준으로 정의되어왔고, 앞에서 설명된 ‘장소애착’과는 적용범위 상의 차이가 있다. 즉, 지역사회애착은 애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 보는 사회학분야의 이해와 환경심리학에서 접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애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관광분야 연구에서는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측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애착을 연구하였다(Jurowski, Uysal & Williams, 1997; McCool & Martin, 1994; Um & Crompton, 1987; Yoon, 1998; 강신겸, 2002: 18에서 재인용). 그러나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애착과 지역주민 태도의 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Um과 Crompton(1987)의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광영향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McCool과 Martin(1994)은 관광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 사이에 명확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반면에 Jurowski, Uysal과 Williams(1997)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은 주민일수록 관광의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영향을 긍정적으로, 환경적 영향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지역애착이 높은 주민일수록 관광영향 인식은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최영희 · 이원철 · 이훈, 2005: 199에서 재인용).

2) 예래동의 지역애착심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애착심이 높으면 지역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의 애착심을 가지고 있던 환경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 이 모두가 지역애착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래동 주민들의 지역애착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두가지 연구결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예래동에서 Um과 Crompton(1987)이 주장한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광영향 인지도의 상반관계가 잘 나타난다. 예래동의 주민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M8, M13). 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이 담겨있는 장소에 대한 애착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기존의 환경이 변형·파괴될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였다.

「유원지의외 지역 토지구협의회」는 2004년 2월 설립되었는데 휴양형 주거단

지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지구로 포함되게 된 토지주들의 모임으로 약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 조직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면적에서 자신의 토지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한라일보」 2003년 11월 22일자). 이들은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로 생존권 침해를 내세웠는데, 집성촌 형태를 띠는 마을공동체에서 대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로 마을을 떠나야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주민들이다. 이는 지역애착심에 근거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면접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입장에서 내 땅을 내준다는 것이 지금까지 농사를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땅이어서 한편으로는 땅을 빼앗기는 기분도 있죠.” (M13)

“예전에 있던 자연들이 개발되면서 하나 둘씩 없어지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그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췌 세대에게도 주고 싶은데 더 이상 있지도 않고... 예전의 미나리 밭(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있고 좋았는데... 그냥 주민의 안식처가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M1)

“더 이상 허물지 않았으면... 발전한답시고 건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했으면 해요. 그래야 시골이 시골스러움이 있고 올래길도 있지만 사람들이 걸어와서 즐겼으면... 나는 자식들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어요.” (F4)

한편,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지역애착심’도 나타난다. 그리고 예래동의 주민들은 Jurowski, Uysal과 Williams(1997)가 주장한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광영향 인지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대두된 것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입지문제였고 반대운동을 전개했지만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고 일부 주민들이 입지에 찬성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이는 행정당국이 입지예정지구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약속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시설입지에 찬성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2003년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개발초기에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마을과 휴양형 주거단지와의 분리를 막기 위해 주거단지와 마을 사이의 연계도로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 그 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협력, 감시의 입장에 서서 마을의 발전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였다. 그들이 마을을 위해 제시한 것은 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창출과 마을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집단행동의 노력은 ‘지역애착심’을 더욱 강하게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땅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 지역소득을 올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대책위원 28명이 항상 의논하고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M13)

“어차피 서로서로 공조해서 살아가야 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협오시설 자체도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M19)

“유해성도 아니고 의료시설도 다 같이 들어오고 하면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래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부대시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태도 생태지만 개발하는 쪽에도 그다지 반발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래를 알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F3)

“그대로 놔두는 것보단 예래마을도 알리고 사람들도 올테고 좋은 면이 더 많을 듯해요. ... 중략 ... 우리 마을도 관광개발되면서 세계화 시대에 따라 함께 할 것 같아요.” (F1)



“젊은 분들이 많지 않고 거의 40대 이상인데 마을이 살아나려면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 생업이 농업위주인데 소일거리도 많이 생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F4)

“이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보면 처음에는 우선기용 했다가 나중에는 타지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거든.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지역주민들이지.” (M20)

“거기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와서 주변지역하고 믹스할 마음만 있으면 크게 불편한 것이 없고, 잘 왔다갔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M15)

이는 개발로 인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사회·문화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애착심을 보여준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마을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것이다.

3) 집단행동의 역할

지역애착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제적 득실을 취하기 위해 지역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손해를 보았을 때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지역애착심’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안위보다는 이웃들과 후손을 더욱 중요시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애착심’은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관광개발에 대한 노력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원하는 ‘지역애착심’은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개발이 지역에 여러 가지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심’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심’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4.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1) 환경보전의 개념

환경과 개발에 관하여 열린 1992년 국제연합총회(리우총회)에서 상향식 접근법을 이용한 지역공동체의 참가에 바탕을 둔 지속성 확보를 위한 활동계획인 Agenda 21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기 위해 개발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환경을 우선시 하는 생태관광, 녹색관광, 체험관광 등이 대안관광으로써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제 환경문제는 파괴에 대한 보전의 차원을 넘어 환경을 환경으로써 개발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그 쟁점이 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더욱이 환경문제의 주요 유형에 해당하는 국책사업과 환경 간 분쟁의 경우에는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환경적인 이익이라는 상반된 이익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인 간에 첨예한 가치의 대립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제주발전연구총서, 2009). 이후석(2004)은 환경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보다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관광활동이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고, 대상지의 매력성과 유인성은 바로 자연미에 있기 때문이다.

2) 예래동의 환경보전

몇몇 연구자들은 예래동을 사례로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최병길, 2000; 오정준, 2003; 염미경, 2007). 예래동 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하며, 생태체험마을로써 환경을 지키고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

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노력과 자부심은 지금까지 지역이 겪어 온 시련 속에서도 환경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문관광단지 개발은 지역주민과 많은 마찰을 야기시켰고 주민협오시설의 도입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은 강한 반발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지하수, 해양, 대기, 토양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등에 관한 것을 연구·조사·홍보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예래환경연구회보, 1999).

예래동은 생태지역로 지정된 바 있고 생태우수지역로 뽑힌 경험이 있을 만큼 자연이 아름답고 생태가 풍부하다. 그래서 예래동의 관광개발에 대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가장 큰 이슈가 되어왔다. 또한, 「예래환경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환경보전과 환경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부분이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반딧불이 보호구역이 개발대상지 내에 포함되어 있고 논짓물 해변축제 장소도 개발대상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 문제를 확대하였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태체험지역과 마을만들기를 추진 중이던 예래동에 이와 대치되는 대규모 인공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여기는 생태지역이에요. 예래 생태지역로 해서 환경부비정 2년 연속 우수생태지역로 상도 받고 예래생태지역위원회가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 해에는 환경부에서 16개 시도 대표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운영하면서 시범학교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이구요. ... 중략 ... 환경을 개발해서 돈을 얻는 것도 수익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2)

“개발 쪽으로 할 때는 잘 살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지역이...” (F5)

“집 앞에서 전에 반딧불이를 잡아서 애들한테 보여줬었어요. 이게 애들이 모르

는 부분이에요. 애들도 그걸보면서... 사실상 그게 막 날아다닐 때예요. 가을에 짝 찢기 시기에. 우리 어릴땐 엄청 많았는데 거의 안보여요. 반딧불이 보호지역이라고 세워놨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 그거죠.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안타까워요. 휴양형 주거단지가 발전되면 생태계가 남아있겠냐 그거죠. 공사가 진행되다보면 그 사람들이 이걸 지키겠냐는 거죠. 편하려고 하다보면 파괴하는데...” (M11)

“여기가 생태마을이다보니까 여기 학교가 생태체험은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학교선생님들 만나보면 여기 학교가 생태체험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 많아서 애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로 인해서 그런 것이 줄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어요.” (F7)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들이 자긍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초고층빌딩으로 인한 논짓물의 고갈, 주민들의 조망권 소실, 반딧불이의 생존위협, 마을 앞바다의 오염 등 여러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다. 그 결과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논짓물의 고갈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M3),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시로 배를 타고 가서 바다의 수질상태를 확인한다(M7).

개발사업이 승인완료되면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반발형태는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 계획안만 나왔을 뿐 가시적인 공사는 문화재 발굴, 투자자 미확보를 이유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 환경적인 이슈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의 태도는 바뀔 여지가 있다. 하수처리장의 8천톤 증설계획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어 염려된다. 또한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발생과 수질오염의 현상이 나타나고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주민들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 특히 환경이라는 이슈는 외부환경단체의 개입을 빼놓을 수 없다. 외부의 환경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실제 상황보다는 단편적인 환경에만 집중한다면, 내부의 환경단체는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에 입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대처할 수 있다.



예래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보았을 때, 환경에 대한 이슈는 예래동의 관광개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3) 집단행동의 역할

관광개발에 대한 환경문제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환경문제를 배제한 관광개발은 ‘지속가능성’을 띄기 어렵다. 그렇다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집단행동은 관광개발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강한 애정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융통성을 가진 지역 내부의 환경단체는 지역사회에서 꼭 지켜야 할 것과 변형할 것을 구분하여 감시와 참여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애착을 가지고 지키고 싶어하는 환경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명소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을 할 때는 집단행동의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가진 관광개발을 이끌 수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광개발에 대하여 나타나는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주민집단의 반발, 경제적 득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 사업주체와 공공간의 협력,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집단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가지는 특성과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광개발과 관련된 지역사회론적인 입장과 관련된 연구의 주된 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득실을 다루고 있거나, 관광개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발을 다루고 있다. 또한, 관광학 연구분야에 있어 관광개발의 영향과 주민태도는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지만 집단행동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와 집단행동의 사례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과연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보다는 집단행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문제제기로 출발하였다.

집단행동이 벌어지는 곳은 관광목적지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고유한 터전이기에 과거부터 간직해온 지역의 역사와 특성 등 지역사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접근과 포괄적인 이해를 위하여 지역언론보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자료, 인터넷 블로그 등을 분석하고 마을대표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적자료수집을 위해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연구목적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대상지 선정은 현재 관광개발이 추진 중이고 집단행동이 객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사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사전조사에서는 예래동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조성사업에 대한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집단행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조사대상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본조사에서 필요한 질문항목, 질문형식, 질문대상 등을 파악하였다. 본조사에서는 관광개발과 관련한 지역의 대표자를 위주로 하고, 일반주민들의 면접으로 수행되어졌다. 단체장들에게는 단체의 역사와 집단행동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일반주민들에게는 관광개발의 영향과 집단행동의 영향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20~60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발대상지 인근의 지역을 두루 조사하였다. 면접내용은 면접대상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 후 문서화하였고, 면접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상황을 필드노트에 작성하였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면접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유출할 것을 약속하였고, 본 연구에서 성별, 연령대 그리고 직업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지역대표자들을 위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완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질문에 응해주신 대표자를 위주로 실시하여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사용하였고,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그래서 지역언론보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자료, 인터넷 블로그 그리고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연대별로 예래동의 관광개발 과정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과정에 따른 집단행동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태도를 언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앞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검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밝혔고,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행동은 정체성을 보전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예래동의 하수중

말처리장 사건에서 지역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은 예정대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결과로 예래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역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더욱 강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환경적·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문화적·환경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관찰자와 감시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래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에 대한 반발로 집단행동이 나타난 이후 지역주민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알게 되었고,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 변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집단행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둘째, 집단행동의 참여효과로써 개인적·집단적 효능감이 증진된다. 예래동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역의 발전에 대한 잠재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관광개발은 집단적 효능감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순환고리가 완성될 것이다. 또한, 통제력이 강화되고 공동체의식이 강한 지역주민의 집단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적 참여기회를 주어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집단행동을 통해 지역애착심이 향상된다. 예래동의 주민들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애착심’과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지역애착심’이 동시에 나타난다. 하지만 모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관광개발이 지역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심’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넷째, 집단행동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존하는데 기여한다. 예래동은 생태체험지역로 지정된 바 있고 생태우수지역로 뽑힌 경험이 있을 만큼 자연이 아름답고 생태가 풍부하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문관광단지 개발은 예래동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스스로 「예래환경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환경보전과 환경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은 주변 환경에 대한 보전과 감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대응한 결과,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논짚물의 고갈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바다 오염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시로 배를 타고 가서 바다의 수질상태를 확인하게끔 만들었다.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강한 애정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 시사점

본 연구는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관광개발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을 조명하여,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광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환경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예래동이 현 시점에서 마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았다.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규모의 관광매력물을 개발하는 곳, 관광개발업자가 새로운 사회집단을 형성시키는 곳 등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민감한 지각과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는 관광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을 뜻한다. 즉,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사회가 흥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개발과 지역사회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협력과 공생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기반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광개발정책 수립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관광개발과정이 지체될 수 있지만, 관광지내 지역주민의 참여없이는 최근의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업주체와 공공은 사업대상지 지역에 동화되어 그 지역의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울타리를 쳐서 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다. 관광개발이 주민의 참여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광개발정책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집단행동을 이용할 수 있다. 소집단을 위주로 점조직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지역주민 자신이 관광개발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부여될 때 그 관광개발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가진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광개발정책 수립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려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광학 연구분야에 있어서 집단행동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와 집단행동의 사례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집단행동은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가 모여 표출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주민 의견보다는 의견이 집결된 집단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협력방안을 찾기가 훨씬 용이하며 집단행동의 이력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 지역의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지역 정체성, 협동심, 이웃간의 정, 단결력 등이 현재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집단행동은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개발에 대해 발생한 집단행동의 입장을 분석하는 것은 관광개발정책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집단행동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차원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합리적 계산을 한다는 전제를 이루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집단행동 연구동향은 사회적 불만이나 집단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이데올로기 및 문화적 지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은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집단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지역애착심을 증진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 정체성, 집단적 효능감, 지역애착

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노력은 관광개발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연구문제 외에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광개발에 대한 집단행동 과격한 시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광개발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다. 반면에 관광영향의 긍정적인 측면은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집단행동이 진화하고 있으며, 마을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겨나는 것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농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 관광개발의 긍정적인 영향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활성화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사업이다. 또한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한 집단행동의 진화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입장을 민주적인 형식으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들었다. 관광개발은 과격한 시위보다는 지역사회와 협력의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개발정책에 있어서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의 한계점도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지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이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역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예래동의 집단행동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한층 발전된 집단행동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7대 선도프로젝트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의 개발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단행동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조사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조사사례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현재 공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시점으로 관광개발의 One Cycle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 나가는 집단행동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의 과정에 집단행동의 개념을 적

용하여 파악하였다는 점과 질적연구방법을 통하여 예래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밝혀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상술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행동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예래동이 현 시점에서 마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았다. 현재까지 겪어온 개발에 대한 경험을 간직한 채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휴양시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문화와 환경적 정체성을 개발의 테마로 이용할 수 있다. 개발승인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환경오염과 지역 정체성 상실이었다. 환경오염은 개발로 인해 자연을 파괴한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예래동이 간직한 환경을 파괴하고 변형하는 것 보다 이런 특색을 잘 살리는 것도 개발에 이득이 될 것이다. 반딧불이 보호구역은 반딧불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더욱 번식시켜 반딧불이 천국을 만든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최첨단으로 정비하여 오히려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과 사업체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낼 것이다. 주민들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도 다르지 않다. 안정적인 고용과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관광지와 지역사회의 연계, 환경보존을 우선시 하는 개발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F4, M20, M15).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것은 긍정적인 개발의 방향이자 최소한의 절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중 한 응답자는 반딧불이 보호구역을 보러 누가 여기까지 오겠느냐(M11)는

말을 했으나 반딧불이를 어디에서 볼 것인가. 반딧불이 보호구역은 우리나라에 딱 한곳. 예래생태지역 밖에 없다.

둘째, 체결된 협력사항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Gray(1989)는 이해집단의 성공적 협력관계를 이끌어 가는 과정으로서 핵심 쟁점의 설정합의, 협력방향 설정 합의 그리고 협력을 통한 집행의 합의 3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의 설정단계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집단들이 광범위한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만약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해집단이 이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그 집단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개발 당시 했던 약속이 점차적으로 소멸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오해가 생기기도 하였다(M6).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참여없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 지역에 동화되어 그 지역의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울타리를 쳐서 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에 따른 관광지에 불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주민들과 사업체가 일심동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굳어질 때까지는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민들과 공공의 지속적인 협력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공공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집단행동을 이용할 수 있다.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소집단을 위주로 점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는 유지·관리 부문에서 지역에 애착심이 많은 주민집단이 참여한다면 관광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지역주민 자신이 관광개발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부여될 때 그 관광개발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가진 사업이 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신겸(2002). 지역사회에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현근(2004). 동네조직 참여의 영향요인 및 심리적 효과. 『지방정부연구』, 8(4), 387-411.
- 곽현근·유현숙(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 고성호 外 9인 역(2007). 『사회조사방법론』. 톨슨출판사
- 고동완(1998).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0). 관광영향의 인식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역할. 『국토계획』, 35(4), 255-269.
- _____(2001).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연구』, 25(3), 63-80.
- 고동완·김현정(2003).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 27(3), 97-114.
- 고동완·정승호(2004).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태도 차이. 『국토계획』, 39(2), 177-188.
- 고동완·박세중·여정태 역(2006). 『관광개발론』. 백산출판사.
- 고동완(2007). 휴양기회분포(ROS) 등급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태도 차이. 『관광연구』, 22(1), 529-548.
- 김남조(2001).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자의 지각, 태도, 기대행위 차이. 『관광학연구』, 25(3), 43-62.
- 김 욱(1993). 경제성장, 집단행동의 논리, 그리고 세포조직. 『한국정치학회보』, 28(1), 1403-1424.
- 김병원(2008). 지역주민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농촌관광 체험지역 개발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2(3), 207-222.
- 김사헌(2006). 『국제관광론』. 백산출판사.
- _____(2007). 『관광학 연구방법론』. 백산출판사.
- 김성국 外(2003).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전통과 현대 통권 23호.
- 나태준(2003). 청계천 복원사업의 언론보도 내용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2), 149-167.
- 박석희(2000). 『관광조사연구기법』. 일신사.
- 박용순(2009).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형준(2007). 거래비용 관점에 따른 지역정부간 협동적 거버넌스 생성과 제도적 집단행동.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305-324.
- 신명석·김남조(2008). 농촌 관광 마을 지역주민의 갈등 구조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7(2), 183-199.
- 심진범(2007).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영향요인.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서호(2007). 『한국적 관광개발론』. 백산출판사.
- 염미경(2007). 지역개발과 주민이해의 정치: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공동체의 사례, 『한국사회학』, 41(3), 1-31.
- 예래환경연구회(1999, 2000), 『예래환경연구회보』, 제 7, 8, 9호.
- 오익근(2000). 내용분석의 관광연구 활용. 『관광학연구』, 24(1), 317-322.
- 오정준(2003).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생태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정학·고동완·김유일(1999).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평가와 유용성. 『한국조경학회지』, 27(1), 79-89.
- 유광민·김진동·김남조(2008). 관광개발사업에서의 지역주민참여 성공요인 분석.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대한관광경영학회 제31차 정기학술발표대회, 449-460.
- 윤여덕 역(2003). 『집단행동의 논리』. 한국학술정보.
- 윤상현·박석희(2006). 관광개발과 갈등. 『관광학연구』, 30(3), 71-89.
- 윤준상·정지웅(1994). 지역사회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 집단행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126(1), 33-42.
- 이경원(2008). 집합행동의 딜레마.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8(4), 317-345.
- 이봉구·김현지(2005).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후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7(3), 341-360.
- 이상철(1995).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사회론』, 2, 105-106..
- 이승구·최규성(2006). 강원도 폐강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태도. 『관광연구저널』, 20(2), 189-200.
- 이후석(2004).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관광개발 태도의 관계분석. 『관광학연구』, 28(3), 221-238.
- 임희섭(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출판부.
- 전희원·문상정(2006). 환경운동 관여수준에 관한 관광개발 영향지각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0(1), 89-104.



- 정근식(1991). 한국사회의 지역지배 이데올로기. 『경제와 사회』, 10, 56-81.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0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백서 2002. 5 ~ 2007. 5.
- 제주발전연구원(2009). 『환경분쟁해결의 공법적 이해』. 가이드출판사
- 조광익·김남조(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조성윤·문형만(2005). 지역 주민 운동의 논리와 근대화 이데올로기. 『현상과인식』, 97, 9-30.
- 최병길(2000). 제주관광의 정체성 변화. 『산경논집』,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제14집.
- 최영희·이원철·이훈(2005). 동굴관광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및 영향요인. 『호텔경영학연구』, 14(1), 193-215.
- 홍성화(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에 대한 지역이해집단의 협력방안. 『관광학연구』, 27(2), 177-195.

<국외문헌>

- Blumer(1969). Outline of collective behavior, in Robert R. Evans, ed. *Readings in collective behavior*. Chicago, McNally, 71-77.
- Burawoy, M. A. Burton, A. A. Ferguson, eds(1991). *Ethnography unbound. power and resistance in the modern metropol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utler, R.W.(1992). Alternative tourism: the thin edge of the wedge. In V.L. Smith and W.R. Eadington(eds). *Tourism Alternatives Potentials and Problems in the Developments of Tour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31-46.
- Durkheim, Emile(198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Y. Mcmillan. [임희섭 역, 『자살론 및 분업론』. 삼성출판사, 1990].
- Eckstein, S.(1989). Power and popular protest in latin America, in S. Eckstein, ed. *Power and Popular Protes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amson, W.A. and A. Modigliani(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unn, C.(1994). *Tourism planning: basics, concept, case* (3rd edn). Washington, DC: Taylor and Francis.
- Hwang, D.(2009). Community-based action to influence tourism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 of Arts thesis*. Illinois University.
- Klandermans, Bert(1989), Grievance interpretaion and success expectations: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Social Behavior*, 4, 113-125.



- Marx(1970). The german ideology.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Mabogunje, A.(1980). The development process: a spatial perspective. London: Hutchinson.
- Malecki, E.(1997).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2nd den). Harlow: Longman.
- Melucci(1980). *The new social movements: A theoretical approach, social science Information*.
[정수복 역,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 문학과지성사, 1993].
- Muller(1992). Building social movement theory., in Aldon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de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3-26.
- Obershall, A.(1978). Theories of social conflict.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4, 301.
- Ragin, Charles C., & Howard S. Becker(1992). What is a case?: explorind the foundations of social inquir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elser, Neil J.(1962).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r York, The Free Press.
- Snow, David A., Burke Rochford, Jr., Steven K. Worden, and Robert D. Benford(1986). Frame alignment proces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464-481.
- Snow, D.A., & R.D. Benford(1988). Ideology, frame res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 B. Klandermans, H. Kriesi and S. Tarrow, ed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197-217.



Abstract

MA.(MS.) Thesis

The Features and Contributions of Resident-oriented Collective Actions towards Tourism Development

Kang, Tae Won

Department of Leisure and Tourism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ositive effects of collective actions, which has been frequently witnessed in Korea recently on local communities. Therefore, the study takes aim at latent aspects, such as, collective spirit among the residents, cooperative movements between project operators and public services, and development of local society, rather than conspicuous facts such as, protests of community members and economic gains and losses. It is necessary to bring up the features and contribution of collective actions which are operated by community members to find out positive effects of collective action on community as a final purpose of the study.

It is important to stand on the side of the local society to understand its long preserved history and characteristics, since the location those collective actions usually take place are residential areas for community members, rather than those to be uses as a tourist site. For a method of approach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suggested, local



press releases, public data handed out into the governments, and on-line articles have been scrutinized and depth interview were held one at a time with the representative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onsider the fact of tourism development project on the process at the time and prominent frequency of collective actions occurred in the past, the area for the study to research on the purpose took place in Ye-re, Jeju, South Korea. Depth interviews were arranged under three main steps: pre-study, substantial, and extra interviews. In addition, content analysis has been adopted as a method of analysis, in the form of collecting and integrating the first and second data. The process of tourism developments of Ye-re has been laid out in other of tim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nd the specifics of the collective actions and the attitude shown at each stage of the process are presented.

The problem stated above has been verified and corroborated through scrutinizing the collected data, and, as a result, the study has found that collective actions toward tourism developments have capability to have positive effects on a relevant local communit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A collective action contributes to preserving and strengthening the identity of a community. The effort of Ye-re community to protect its identity from the construction of a sewage treatment plant had been gradually developed as an aggressive collective action; however, the project was processed. But, those actions had comes to result even more tightened community identity. The community revealed its disapproval of the project to create a residential resort town in Ye-re, for a possible threat on its environmental and cultural identity. 「The Emergency Counterplan Council

of the Community Members of Ye-re」 takes its role as an observer and a supervisory organization to preserve its environmental and cultural identity.

Moreover, presence of a new identity encourages community members to participate in its issues. The community members have come to realize their own strength and capability after the collective actions took place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sewage treatment plant in Ye-re. This can be seen as the change of the community's attitude toward tourism development. In addition, more efforts have put on seeking various attractive and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which the local society has within itself.

Such phenomena show that collective actions play a positive role in settling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ose active efforts of the community to create a new identity would enhance the local society to an upper-stage of its development.

Secondly, the efforts of participation in collective actions enrich collective efficacy on both individuals and community. The community members revealed their tacit supports on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upon the mutual trust among them, rather than speaking up individual wants. Such trust within the community drives tourism development to be accomplished well; and successful tourism development would nurture collective efficacy, thus leading to complete a cyclic process of those two actions.

Thos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actions toward tourism development offer some clues to provide effort of both tourism and local development, contributing to main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irdly, attachment to the community can be formed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actions. People in Ye-re revealed their attachment to the

community in two concepts simultaneously: their will to keep their attractive natural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to inherit to the future generation and the hope to develop the local society for their change. Either concept of attachment to the community encourages the community members to participate with eagerness, thus enabling tourism development to keep on the rails.

Finally, a collective action has its contributions to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see-sights. As been designated as an-eco-experience zone and nominated as a well-presented eco zone, Ye-re is honored by its beautiful ecological environmental nature. The development of Jungmun Resort, since the 1970s, became an impetus to realize the newly-developing environmental problem in Ye-re. So, 「Ye-re Environmental Society」 operates outstanding performances i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 on the first place, and such collective actions come out in the form as a preserver and a supervisor.

Along with it, 「The Emergency Counterplan Council of the Community Members of Ye-re」 effectively tackles the issue of its threatened environment, which provides pride and attachment to the community members. As a result of its response, lightning bug are still alive in the area, and experts are employed to investigate into the parched irrigable water, together with examining quality of sea water by sailing far into the sea from a sewage treatment plant to address sea pollution. The community members' strong attachment to their environment will exercise its positive influence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Keywords: Collective Action, Tourism Development, Identity, Collective Efficacy, Attachment to the community,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